

석 사 학 위 논 문

**국어사용능력 신장을 위한
제주속담활용 지도 방안**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고 진 숙

2003년 8월

국어사용능력 신장을 위한 제주속담 활용 방안

A program of utilizing Jeju proverb to improve
Children's Korean Language Abilities

지도교수 고 재 환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5월 일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고 진 숙

고진숙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2003년 8월 일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문 초 록

국어사용능력 신장을 위한

제주속담활용 지도 방안

고 진 숙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고 재 환)

본 연구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게 제주속담을 활용한 국어사용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속담이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임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지만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저학년에게 속담을 지도하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화자나 청자가 속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언어 자원으로서의 존재가치가 희박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제주속담을 국어교육의 장으로 끌어내어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고 창의적인 국어 생활 측면에서 새로운 속담을 만들어보게 하는 활동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2장에서는 제주속담의 개념과 배경을 살펴보고 제주속담을 속담 자체로 연구한 사례와 속담 교육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속담을 국어교육의 수단으로 활용한 예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3장에서는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과정기까지의 교육과정 상의 속담 교육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분석한 후 속담 지도 내용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제주속담 자료 선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속담의 국어 교육적 자료의 선정 기준을 마련한 후 교육용 제주어와 교육용 제주속담을 추출하여

국어 영역별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국어과 수업모형과 속담 지도와의 관계를 고찰하고 속담 지도 내용을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제주속담 교육의 실제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속담 이해 능력에 대하여 알아보고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영역에서 마당별, 단원별로 적용할 제주어와 제주속담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제주어 교육 방법과 속담 지도 교수·학습 전략을 상세히 제시하고 지도 사례를 서술하였다. 또한 제주속담을 지도하기 위한 수업모형으로 탐구학습 모형, 역할놀이 학습 모형, ICT 활용 교수·학습 설계서와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고 수업하면서 느낀 점을 적어 놓았다.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한 속담 지도 방안으로서 재량활동 연간계획표를 작성하고 재량활동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였고, 속담 교육에 관한 평가로는 속담의 이해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평가지 분석과, 속담 교육 방법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저학년 아동들에게도 속담을 활용하여 아동들의 어휘력을 향상시키고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수·학습 전략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들이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생한 언어를 활용하는 교수·학습 방안을 국어교육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주요어: 제주어, 제주속담, 국어사용능력.

목 차

국문초록	i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방법과 제한점	3
3. 용어의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5
1. 제주속담의 개념과 특성	5
1) 제주속담의 개념	5
2) 제주속담의 특성	5
2. 선행연구의 검토	6
1) 제주속담 연구	7
2) 속담 교육 연구	9
III. 속담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분석	14
1. 교육과정 분석	14
1) 교수요목기~제6차 교육과정 분석	14
2) 제7차 교육과정 속담 분석	17
2. 교과용 도서 분석	20
1) 교과서 속담 분석	20
3. 속담 지도의 개선 방향	25
IV. 제주속담 교육자료의 선정	27

1. 자료 선정 기준	27
2. 선정 자료 분석	28
3. 수업 모형 선정	29
V. 제주속담 교육 방안	32
1. 아동의 속담 이해 능력	32
2. 연구의 대상	33
3. 제주속담 지도 내용	33
1) 영역별 지도 내용	33
2) 어휘 지도	36
3) 듣기·말하기 지도	36
4) 쓰기 지도	37
4. 제주속담 교육 방법	37
5. 제주속담 지도 교수·학습 과정안	57
1) 역할놀이 학습 교수·학습 과정안	57
2) 문제해결학습 모형 교수·학습 과정안	59
3) ICT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62
6. 재량활동 시간의 제주속담 지도	66
7. 평가	69
VI. 결론 및 제언	73
1. 결론	73
2. 제언	74
참고문헌	76
ABSTRACT	79
부 록	81

표 차 례

<표 III-1> 교수요목기~제6차 교육과정 속담제재	16
<표 III-2> 제7차 교육과정상의 속담	18
<표 III-3> 교과서의 수록 속담	20
<표 III-4> 교사용 지도서의 속담 내용	23
<표 IV-1> 국어영역별 제주속담 자료	28
<표 V-1> 1학년 1학기 지도 내용	34
<표 V-2> 1학년 2학기 지도 내용	35
<표 V-3> 재량활동 시간 연간 계획표	66
<표 V-4> 속담 평가 결과	71
<표 V-5> 제주속담 설문 결과	72

그림 차례

<그림 V-1> 제주속담 그림카드	39
<그림 V-2> 파워포인트 자료	40
<그림 V-3> 역할놀이 사진	42
<그림 V-4> 역할극과 모의 인터뷰 모습	44
<그림 V-5> 아이디어 생성하기의 예	46
<그림 V-6> 손바닥 학습지	48
<그림 V-7> 속담 관련 학습 그림	50
<그림 V-8> 마인드 맵 그림	68

부록 차례

<부록 I> 교육용 제주 속담	83
<부록 II> 속담 평가 학습지	93
<부록 III> 속담 교육 학습지	94
<부록 IV> 속담 교육 설문지	103
<부록 V> ICT교수 · 학습과정안 PPT 자료	105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바르고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예로부터 조상들은 속담을 활용하여 분위기나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해왔다. 또한 같은 말투를 사용하는 고향 사람들끼리 만나면 왜 그런지 정겹고 마음의 벽을 쉽게 허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너도나도 표준어로만 대화하려하고, 표준어 사용만 강조하다보니 적당한 어휘 선정이나 속담 활용에 서툴러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 비해서 속담 사용 빈도는 줄어들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상 대화에서 속담을 종종 사용한다. 하지만 속담이 아무리 상황을 잘 묘사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화자나 청자가 속담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소통 장면과 상황맥락을 중시하는 국어교육 현장에서는 함축된 언어 표현으로서의 속담과 그 지방의 고유어에 대한 교육, 방언을 활용한 국어사용능력 신장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창의적인 국어 생활 측면에서 속담을 새로 만들어서 활용하게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언어란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속담을 인용하여 말하다보면 개인이 상황에 맞게 만들어서 쓸 수 있다. 또한 사회 현상이 변함에 따라 사용되는 어휘가 사라지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한다. 이렇게 변형된 속담을 여러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결국 새로운 속담이 창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교육에서는 이미 형성된 속담을 익히는 것 뿐 아니라 창의적으

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의 구비문학 교육은 특정 갈래의 편중, 학습 기회의 집중, 학습자의 발달 단계 무시, 학년 학교 급별 내용의 단절, 구비문학적 성격의 상실, 언어 생활과의 분리, 목표와 본질의 착종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¹⁾ 더구나 그 지방에서만 통용되는 고유어로 된 속담지도는 전무하여 그 지방 고유의 정서적 표현보다는 표준어로 된 속담 교육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아동들이 주로 사용하는 고유어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나 맥락에 적절한 언어표현이 아니어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는 동떨어진 학습 방법이다. 그러므로 학습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고유어로 된 속담 교육과 이를 활용한 창의적인 국어능력의 신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을 구안 적용하고,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여 열린 교재관에 의한 학습자 중심의 국어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속담 교육 영역을 보면 국어 교육 목표가 국어사용능력 신장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속담이 가진 상황을 간결하게 또는 강조하여 나타내는 언어적 기능만 강조하다보니 문학적 기능을 무시한 문제점을 가진다. 속담을 일상 담화에 섞어 쓰는 일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일상 담화 속에서 새로운 속담을 만들어 내는 일이야말로 구비문학으로서의 속담 교육이 나아갈 길이다. 그렇지만 교과서에 속담이 독립된 단원으로 수용되는 일은 구비문학이 말하기 교육의 자료로 유효 적절함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²⁾

속담의 사용에 대하여 아는 것이 국어사용능력 신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속담의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는 속담의 의미적 특성과 형태적 특성 등 속담 자체에 대한 연구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일반적인 국어 지도

1) 장석규, “구비문학 교육 현실의 진단과 처방”, 《문학과 언어》 21, 1999, pp.169~183.

2) 장석규, “구비 문학 교육의 효용론”, 《구비문학연구》 8, 한국구비문학회, 1999, p.350.

방법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속담의 지도 방법에 대한 연구는 지도 방법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속담은 국어 교육 전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국어 교육, 또는 국어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결국 속담을 그 지방 고유어로 이루어진 가르치는 일은 국어능력의 신장뿐만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됨과 동시에 조상들의 고유한 삶을 이어나가는 길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속담을 활용한 국어사용능력 신장의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만 지도하게 되어있는 속담 지도가 저학년에도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제주속담 수업형태와 다양한 교수·학습전략을 개발·적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제한점

1) 연구 방법

본 연구자는 선행 연구물들의 성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아동들의 실제 담화 상황에서 사용되는 제주어와 제주속담을 국어수업 현장으로 끌어들여 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국어사용능력 신장 방안을 모색하고, 제주속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를 함으로써 더 나은 국어생활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

. 3장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의 속담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그 대안점을 모색해본다.

. 4장에서는 제주속담을 교육 자료로 선정하고 속담 자료를 분석한다.

. 5장에서는 제주속담을 국어수업에 직접 적용하여 국어사용 능력이 향상 되는 지를 알아본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저학년 아동들에게 속담을 활용한 국어사용능력 신장 방안으로서 교수·학습전략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개발한 수업형태나 학습전략, 또는 제주어와 제주속담 선정에 대한 효과 검증은 다루지 않았다. 또한 연구자가 개발한 교수·학습 방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투입할 수 있으나 연구자가 담임하고 있는 1학년 아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연구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교사용 지도서 교과서 분석은 초등학교 전 학년에 걸쳐서 실시하였지만 실제적인 지도 내용의 개발과 적용은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였다.

3. 용어의 정의

1) 속담

옛날부터 민간에 내려오는 교훈적인 말로 옛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풍습이 담겨져 있는 간결한 표현을 말한다.

2) 제주속담

제주인이 실생활을 통해서 체득한 생활훈³⁾을 말한다.

3) 국어사용능력

의미를 언어화(표현)하고 언어에서 의미를 추출하여 (이해)하는데 필요한 어휘력·독해력·문장력·문제 해결력 등을 말한다.

3) 본 연구에서는 고재환의 «제주도속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속담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제주속담의 개념과 특성

속담에 대한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고 다양하여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제주속담인 경우는 지역적으로 제주에서 사용된다는 점과 지속적인 내·외부 세력의 침탈과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오는 소재의 특이함과 더불어 우리 고유어의 형태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그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1) 제주속담의 개념

속담의 명칭은 조선 광해군 13년(1612)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속담조선공사삼일”을 시작으로 해서, 영조 24년(1748) 《동문유해》와 정조 원년(1777) 《명의록언해》에 한글로 ‘속담’이라고 기재된 것을 토대로 할 때 17·18세기 무렵부터 통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⁴⁾ 그렇지만 원래 속담은 저속한 것으로 알고, 고답준론을 이상으로 하는 상류의 식자층에서는 경멸해서 짐작은 자리에서는 쓰기를 꺼려했다. 그러나 사회의 기층구조를 이루고 있는 서민대중들에게는 통속적 보편성을 띤 공감대로서 활력이 넘치는 통속어였다.⁵⁾ 왜냐하면 속담은 민중의 삶의 내력과 실상이 담겨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못 사람을 일깨우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바늘 가는데 실 따라가듯이, 한약방에 감초 격으로 남녀노소·지위의 높고 낮음·유식과 무식에 관계가 없이 대화가 있는 곳이면 두루 활용됐던 것이다. 제주도 속담 역시 예외일 수가 없다. 제주도 속담은 제주인의 생활상과 내력이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표출돼 있는 동시에, 실생활을 통해 체득한 생활훈으로서 삶의 슬기와 철학이 진솔하게 담겨져 있는 말의 보배이다.

4) 고재환, 《제주속담총론》, 민속원, 2001. p.17.

5) 위의 책, p.18.

2) 제주속담의 특성

이은상⁶⁾은 17세기 영국의 문인이면서 속담 수집가인 J. Howell이 제시한 속담의 세 가지 요소인 단형(shortneess)·의의(sense)·함미(salt)에 통속성(popularity)을 추가시켜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한 바 있다. 이로써 한국속담의 특성도 그 윤곽이 드러났지만, 고재환⁷⁾은 이를 토대로, 간편성·비유성·교훈성·통속성·공감성 등 다섯 가지 특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만큼 속담은 그 언술 형태가 문자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구비전승을 본연으로 한, 언중의 공감 정도가 그 속담의 우열을 가늠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속담 전반에 걸친 보편적인 속성일 뿐, 제주도의 속담으로서 육지 부의 속담과 차별화 할 수 있는 특성일 수는 없다. 그러면 그 차별된 주요 특성은 무엇일까? 다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언어학적 측면에서 소멸된 고어의 형태가 상당량이 보존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5세기 중세국어의 원형과 그 변천과정의 어형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어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둘째는 민속학적 측면에서 제주도가 아니면 찾아보기 어려운 풍습을 통해 제주인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다.

셋째는 문화적 측면에서 지역적 환경여건에 따른 의식주와 직결된 생업문화의 양상이 이채롭게 나타나고 있어, 육지부의 속담과 차별화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선행연구의 검토

제주도는 삼다, 삼무, 삼보의 고장이다. 그 중에서 삼보는 언어, 식물, 바다

6) 이은상, “이언의 의의와 및 그 형식에 관하여”, 《동광》 제10호, 동광사, 1927. p.23.

7) 고재환, 앞의 책, p.21.

를 일컫는 말인데 특히 제주 설화나 신화, 고유어, 민요, 속담 등은 소중한 구비문학의 보물창고로서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그러나 그 동안의 제주속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훌륭한 언어 자원이 있다해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 명맥이 끊기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 속담 연구가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현재 국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구비문학에 비하면 속담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1) 제주속담 연구

제주도는 척박한 자연환경과 지배층의 피압, 이민족의 침탈로 인하여 오랜 세월 동안 제주인 끼리 뭉치고 헤쳐나가며 독자적 문화권으로 고유성을 보전하여 왔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재환은 2000년 《제주도속담 연구사》를 통해 1930년대부터 1999년까지 제주도 속담에 대한 연구의 자취를 추적해서 그 걸어온 과정을 ‘논저’ 부분과 ‘자료집’으로 구분해서 살폈다. 본 논문에서는 고재환의 정리한 내용 중에서 자료집의 연구 성과를 살펴본 다음에 논저를 연도순으로 배열하였다.

자료집으로는 석주명이 1947년에 펴낸 《제주도 방언집》에 제주속담이 22편, 1953년 김사엽의 《속담론》에 제주도에서 수집된 103편이 수록되어 있다. 1958년 진성기의 《제주도 속담》에도 400여 편을 수록했으나 제주도 고유의 속담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사용되는 속담은 다 수록하여 제주 고유의 속담집으로 명명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

전국규모의 학술 조사에서는 장덕순(1974)이 《한국민속종합보고서》에서 제주 속담 99편을 채록하여 수록하였는데 되도록 제주어 표기법에 충실하려고 애쓴 점이 눈길을 끈다.

1986년에 이기문이 펴낸 《속담사전》에서는 진성기의 《제주도속담》과 《남국

의 속담»에서 발췌하여 그 일부를 수록하고 제주 방언으로도 표기해서 소개했다.

사전류로는 1999년 고재환이 유일하게 제주속담 1,200여 편과 선외의 것으로 분류한 430편을 한데 모아 엮은 «제주도속담사전»과 2002년 증보판 1,420여편의 «제주속담사전»이 주류를 이룬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제주도의 고유어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지만 속담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1950년대에 제주도에 통용되고 있는 속담 자료를 한데 모아 엮은 «남국의 속담»과 1970년대에 논문 4편이 나왔을 뿐이다.

논저로는 김사엽이 «속담»에서 “다도해 속담의 지방적 특색”을 거론하는 ‘제주도’편에 속담 41편을 열거하였고, 현용준이 1959년 제주상고 교지에 “제주도 속담의 특성”이라는 논문에 속담 180여 편을 수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소재 면의 특성, 형식 면의 특성, 내용 면의 특성을 열거한 점이 돋보인다. 그 후로 1960년도에 “제주민요의 속담적 표현”에서 문학적 표현의 우수성과 운율의 구전성, 문학적 표현미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야 고재환이 홀로 속담을 채록하고 분석하여 “제주도 속담 연구”를 내놓았고, «제주속담총론»과 «제주속담사전»으로 이론적 체계를 세웠다. 1981년도에 296편을 채록 선별하여 그 특성을 추출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제주도 속담의 형성 배경, 형태의 특성, 생업상의 특성, 소재의 특성, 주제의 특성 등 다섯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

1987년에는 “제주도 속담연구”를 통해 550편의 자료를 선별해서 제주도 속담의 정체를 밝히고 속담이 지닌 개념적 특성과 그들 속담이 이뤄진 환경적인 요인을 비롯해서 제주도 속담에서 돋보이는 ‘언어의 특성’, ‘요사(謠詞)와 교류’, ‘여성의 자존성’, ‘도민의 의식’을 밝힘으로써 제주도 속담의 정체를 개괄할 수 있도록 했다.

1993년에는 “제주도 속담의 교육적 기능”이라는 논문을 통해 속담이 실생활을 통해서 체득한 생활 훈인 점을 고려해서 그들 속담들이 갖는 일깨움의 교훈성을 교육적 기능에 접합시키고 있다. 그 교육적인 기능은 전인적인 인간상을 지향하기 위한 지덕체를 중시여기는 내용으로 된 속담 180편을 대상으로 추출해낸 것이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속담을 속담 자체로 수집하여 집대성하였지만 국어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국어 수업 현장이나 교수·학습 상황에 끌어들이지는 못하였다.

2) 속담 교육 연구

속담 교육에 대한 연구내용은 교육과정의 변화와 속담의 언어사용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난 후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석사논문을 연도순으로 배열하여 속담 교육에 관한 대략적인 연구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다.

김기창⁸⁾은 속담 교육은 전 교육과정기를 통해서 초등학교에서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록 제재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다양한 제재를 더 많이 수록해야 하겠고, 언어 영역에만 지도 목표를 한정하지 말고 문학교육면이나 가치관 형성에도 그 목표를 두고 지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 민족의 생활 감정이나 민족성의 일면을 이해시키고 이를 계승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교훈적, 화술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⁹⁾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문학교육으로서 또 인생에 대하여 다방면에 걸친 도리나 지식을 교시해줌으로써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행동의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초등학교의 교과서에 수록된 속담 제재를 고찰하여 한번 수록된 속담이 각

8) 김기창, 《한국구비문학교육사》, 집문당, 1992. p.192.

9) 고재환, 앞의 책, p.218.

교육과정에 계속 실렸다는 점, 주제 면에서도 ‘말조심’에 대한 속담이 많이 편중되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서혁¹⁰⁾은 속담의 언어사용으로서의 특징을 논리적 모순 관계의 속담과 상황성, 표현으로서의 속담이 갖는 특성으로 나누어서 다루고, 속담어법의 국어교육적 의미로서는 사용언어의 교수·학습 자료, 표현 수단으로서의 어휘의 제공, 현실 사태에 대한 인식의 틀 제공, 발상과 표현법의 제공들을 들고 있다.

이성영¹¹⁾은 속담이 아무리 훌륭한 언어적인 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속담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없다면 한낱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으므로 속담의 표현 방식이 갖는 국어 교육적인 의미를 들추어서 사용언어로서의 속담, 語로서의 속담과 文章언어로서의 속담, 속담 표현 방식의 구조들을 다루고, 속담어법의 국어교육적 의미로서는 사용 언어의 교수·학습 자료, 표현 수단으로서의 어휘 제공, 현실 사태에 대한 인식의 틀 제공, 발상과 표현법의 제공들을 들고 있으며, 국어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언어사용능력의 신장을 위해서는 어떤 언어적 실체가 국어교육의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국어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종철¹²⁾은 국어사용 능력을 신장시켜주는 국어학 분야로 화용론을 들고, 그 하위 분야로 속담이 사용될 때에 어떤 형태를 띄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속담의 형태적 사용 양상에 따른 함축 전달의 양상과 유의적 속담의 형태적 양상, 교육용 속담의 선정 연구를 들어 속담의 형태적 양상을 바탕으로 한 속담의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조금 더 덧붙인다면 속담의 형태적 사용 상황을 등재형, 활용형, 변형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속담이 실제 사용될 때 쓰이는 표현 형식을 익히고 현

10) 서 혁, “언어사용으로서의 속담 표현의 특성”, 《선청어문》 제21집, 1993. p.246.

11) 이성영, “속담 어법의 국어교육적 의미”, 《국어교육》 73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1. p.167.

12) 이종철, 《속담의 형태적 양상과 지도 방법》, 이회, 1998. p.88.

대적 감각으로 변형된 형태들의 표현 효과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변형형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지도 방법으로는 속담의 등재형과 활용형을 지도하고 두 번째는 유의적 관계에 있는 속담을 지도하고 세 번째는 변형형을 지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육용 속담을 선정하는 방법과 기준, 기본형 제시 기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교육용 속담을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객관적 방법이 적합하고 선정기준으로는 사용빈도가 높은 것, 사용 범위가 넓은 것, 기본 의미가 원래대로 잘 유지되는 것,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맞는 것을 제시하였다. 기본형을 제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사용빈도가 넓은 형태, 복수 기본형의 허용, 지나친 비속어의 평어 대체, 가능한 한 완전한 문장 형식으로서의 제시를 들었다.

최창렬¹³⁾은 속담이 불교나 고사, 민간 습속, 판소리 등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보고 속담이 언어 활동으로 존재할 때에 작용하게 되는 의미론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속담의 원형, 변이형, 풍자적 의미 등을 알아보고 우리 속담의 위세적 표현으로서 우리말 속담의 한자 숙어화와 그 의미, 우리말 속담 한자화의 다양성과 그 의미, 그리고 다양하게 유형이 변하면서 전개되는 우리 속담 한자화의 이모저모를 살폈다.

최재학¹⁴⁾은 속담과 국어교과와의 연계학습을 통한 어휘력 신장 방안 연구를 통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속담지도를 함으로써 언어기능 능력 신장방안을 연구했다. 특히 생활 문화 용어와 관련 있는 속담 조사, 향토 문화 용어와 관련된 속담을 찾고 국어교과와 연계 지도하여 비교 집단과 연구 집단간의 지역간 차를 검증하였다.

임유정¹⁵⁾은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서 속담을 가려내어 사전에 등재된

13) 최창렬, «우리 속담 연구», 일지사, 1999. pp.27~39.

14) 최재학, “속담과 국어교과와의 연계학습을 통한 어휘력 신장 방안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15) 임유정, “속담의 지도 방안 고찰”,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형태를 속담사전에서 찾고 그 형태를 제시하였다. 특히 속담 예문에서 말하기 ·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각 영역을 표시하고 그 맥락을 함께 제시하였다. 속담의 유형별 지도로 기본형, 활용형, 변형형 지도방법과 속담의 대비적 지도 방법으로 유의적 속담, 반의적 속담을 지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박정안¹⁶⁾은 속담의 발생과정과 특성, 국어 교육적 의의를 살피면서 속담지도 방법으로는 등재형의 지도, 변용형의 지도, 변이형의 지도 방법을 모색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지도하려는 의도는 있으나 실제 교수 학습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안내가 아쉬웠다.

박수미¹⁷⁾는 속담의 생성 과정과 특성, 속담 교육의 의의, 속담의 지도방안으로 형태적 유형에 따른 지도에 의해 기본형, 활용형, 변형형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리고 의미 구조를 통한 속담의 어휘의 지도 방법으로 유의적 관계, 반의적 관계, 중의적 관계의 속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러나 영어 속담과 한문 속담을 통한 어휘 확장 지도에 치우쳐서 국어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도 방법 제시에는 미흡하였다.

제주어나 제주속담을 국어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자료는 아쉽게도 찾아내지 못했다. 또한 다른 지방의 사투리를 국어사용 능력 신장을 위해 사용한 논문도 찾아내지 못했다.

제주어나 제주도 속담 연구에 대한 연구 층은 매우 얇아서 오늘날까지도 고재환 혼자에 의해서 연구의 명맥이 지탱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집의 발간만 해도 그렇다. 오늘의 제주를 있게 한 선인들의 기층 의식과 생활상이 담긴 귀중한 생활훈이자 민족어인 언어유산을 후세에 올바르게 전수하기 위해서 그 수집된 속담들에 대한 올바른 표기의 기록화가 절실히 요망된다. 제주어 표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 올바른 표기를 등한시함으로써 제주어의 원형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왜곡시켜 버리는 악재로 작용하

16) 박정안, “속담의 국어 교육적 의의와 지도방법”, 경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17) 박수미, “국어교육에서 속담의 지도 방안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전공 대학원생들이 조사한 성읍 민속촌의 차림표에 제시되어 있는 사례만 보더라도 ‘폭낭’을 ‘폭낭’으로, ‘도새기궤기’를 ‘드새기궤기’ 등으로 표기된 것¹⁸⁾을 것은 찾아볼 수 있었다. 결국 속담에 한정된 것이 아닌 제주어의 올바른 연구와 보존을 위해서도 제주어 표기와 제주속담 교육은 각별히 유념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18) 2002년 현지 답사 시 차림표를 중심으로 조사해보니까 음식점이나 가게마다 제각기 차림표의 표기가 다르고, 관광 안내원들이 관광객 교육용으로 내놓은 자료를 보아도 말장난이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억지 조어가 많았다.

Ⅲ. 속담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분석

1. 교육과정 분석

1) 교수요목기 ~ 제6차 교육과정 분석

교수 요목기부터 제6차 교육과정까지를 분석해보기 위하여 김기창¹⁹⁾의 저서와 성인정²⁰⁾의 논문을 분석해보았다. 주로 교육과정 속담 지도 내용의 변모 양상을 살펴보고 중요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한국구비문학사를 연구한 김기창²¹⁾의 연구에 따르면 개화기의 속담 제재가 실린 교과서는 ‘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뿐이다. 속담은 권6 제11과와 권8 제8과에 각각 ‘이언’이란 단원에 10구씩 20구가 실려있다. 정부 주도형 교과서에만 실려있고 출전이 분명한 속담이 많았으며 주제별로는 여러 가지로 산만하게 수록되었고 많이 쓰이지 않는 속담, 속담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서술적인 표현의 글도 수록이 되었다.²²⁾ 독립 운동기의 보통학교 학도용 조선어독본, 보통학교 조선어급 한문독본,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조선어독본, 등에 다양하게 수록되었으나 제재 선정의 경향과 의도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교수 요목기에는 다섯 종류의 책에 32구가 수록되었다. 한글첫걸음, 초등국어 교본, 초등국어 등에 격언과 같이 실었다. 격언과 속담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서 섞여 나왔지만 한 교육과정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셈이다.

제1차 교육과정기에는 국민학교 4학년 2학기에 ‘짧은 글’이라는 대단원 아래 ‘속담과 격언’이라는 소단원이 나온다. ‘속담과 격언’에는 15구의 속담과 4구의

19) 김기창, “속담교육소고”, 《한국어문교육》 제1집, 1990. p.115.

20) 성인정, “국어교육을 위한 속담 지도 방안”, 《사라어문》 제4집, 제주교육대학교, 1998.

21) 김기창, 《한국구비문학교육사》, 집문당, 1992. p.52

22) 위의 책, p.53.

격언을 수록하였다. 제재의 수록 내용은 속담의 특징, 여러 가지 속담과 그 뜻, 격언의 뜻, 속담과 격언 모으기의 순서로 되어있는데, 교수요목기에 비해 제재 수록 내용면에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다.

제2차 교육과정기에는 1차 교육과정 때와 똑같이 수록되었다. 제1차 때와 다른 점은 발전적인 과정으로 본문에 나오지 않은 6구의 속담을 ‘공부할 문제’에 제시하고 말의 표면적인 뜻과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을 살펴보도록 했다.²³⁾

제3차 교육과정기에는 ‘말의 구실’이라는 대단원 아래 ‘속담과 격언’이라는 소단원이 나온다. 수록 속담 수와 제재 수록 방법이 제1, 2차 교육과정기와 같다.

제4차 교육과정기에는 국민학교 4학년 1학기 교과서에 설명문 단원으로 ‘속담’제재가 수록되었다. 이 시기에는 서술형식면에서는 속담의 특성을 조목조목 드러내는 방법을 썼고, 내용 면에서는 우리들의 언어생활 속에 깊숙이 위치한 속담을 소개하고 풀이하여 아동들에게 언어 생활의 폭을 넓혀 주도록 의도한 적절한 수록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²⁴⁾

제5차 교육과정기에는 교육과정이 바뀐에 따라 국어교과서가 3권으로 분책되었다. 이 때에는 속담을 국민학교 3, 4학년 때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되어있는데 학습 내용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짜여져 있다. 3학년 2학기 때에 속담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는 글을 수록하였고, 4학년이 되어서는 속담을 이해하고 만들어보며 보다 발전적인 학습으로 속담을 이용하여 표현능력을 길러주고자 하는 면이 보인다.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속담 제재 분석²⁵⁾에 따르면

제6차 교육과정기에는 수록된 속담 수가 67수로 5차 교육과정 때보다 25수나 증가하였고 다양한 주제의 속담을 단원의 차시별로 다양하게 수록 편찬하였다

23) 위의 책, p.97.

24) 위의 책, p.122.

25) 성인정, 위의 책

고 설명하였다. 또한 속담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상황의 제시, 삽화의 활용, 뜻의 비교, 문장 짓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여 언어사용기능 신장을 고려한 속담의 교재화가 되었다고 하였다. 학년별 수록 내용을 보면 3학년 4개, 5학년 19개, 6학년 44개로 속담의 비유적 특성을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6학년에 가장 많이 수록되었다. 그러나 5학년과 6학년에 중복 제시되어있는 경우²⁶⁾와 같은 학년일 때에 서로 다른 교과서에 중복 제시되어있는 경우²⁷⁾를 들면서 보다 다양한 속담 제재 수록의 필요성을 들고 있다.

〈표 III-1〉 교수요목기~제6차 교육과정 속담제재

구분 교육과정기	책이름	발행 년도	학년	학기	단원	제재명	수록 속담수	비고
교수 요목기	한글 첫걸음	1945			37	속담	11	초중등 기초 학습서
	초등국어 교본	1947	6	1	19	격언	속담5 격언2	
제1차	국어	1959	4	2	5	속담과 격언	15	
제2차	국어	1964	4	2	14	속담과 격언	15	
제3차	국어	1974	4	2	6(1)	속담과 격언	15	
제4차	국어	1983	4	1	2(1)	속담	13	
제5차	읽기 말하기듣기 쓰기	1989	3	2	5	속담	15	
		1990	4	1	14	속담	6	
		1990	4	1	14	속담 넣어 글쓰기	18	
제6차	읽기 말하기듣기		2-6 3	1,2 1	49 49	속담		

26) 여러 가지 속담 중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가 그 한 예다.

27) 6학년의 말하기·듣기·쓰기 교과서와 읽기 교과서에 ‘우물물에 가 승냥 찾는다’, ‘새벽달 보려고 초저녁부터 나앉는다.’가 중복 제시되어있다.

2) 제7차 교육과정 상의 속담 지도 내용

제7차 교육과정은 영역별로 분석해보았다.

듣기 영역에서 속담이나 방언을 지도하는 내용은 6학년에만 제시되어있다.

말하기 영역에서는 5학년 기본활동으로 표준어와 방언의 가치를 알아보고 표준어로 말하는 것을 권장하며, 심화활동으로 우리 지역의 방언을 표준어로 바꾸어보는 활동을 하게 되어있다. 6학년에서는 다양한 표현 방법 중의 하나로 기본활동에서 속담을 인용하여 말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읽기 영역에서는 6학년에만 다양한 표현의 의미를 알아보는 활동 방법으로 기본활동과 심화활동에서 속담의 의미를 파악하며 글읽기, 속담 찾아보기 활동 등을 하게 되어있다.

쓰기 영역에서 지도할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국어지식 영역에서는 5학년과 6학년에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되어있다. 방언의 개념, 방언을 쓸 때의 장단점, 한자어나 외래어, 외국어를 고유어로 바꾸는 활동이 제시되어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교육과정 중에 국어사용능력은 전 영역이 골고루 제시되고, 꾸준히 지도되어야 하는 데, 5학년에서는 말하기 영역과 국어지식, 6학년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국어지식 영역에 제시되어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학년간의 위계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국어교육에서 속담이 지도될 때에는 먼저, 속담의 기본적인 개념을 상황에 따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의미를 점검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학습자가 속담을 다양한 실제 상황에 적용하고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²⁸⁾

28) 서현석, “다공간 모형’을 활용한 속담 지도 방안”, 《한국어문교육》 제12집, 2003. p.371.

〈표 III-2〉 제7차 교육과정상의 속담 지도 내용

영역	듣기		
	내용	기본	심화
1			
2			
3			
4			
5			
6	여러 가지 표현의 의미를 알아보며 듣는다	말하는 이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속담, 관용 표현, 격언, 명언 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며 듣는다	속담이나 관용 표현, 격언, 명언 등을 더 찾아보고 그 의미를 알아본다
영역	말하기		
	내용	기본	심화
1			
2			
3			
4			
5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표준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표준어와 방언의 가치를 알아보고 공식적인 말하기에서 표준어로 말한다	우리 지역의 방언을 조사하고 그에 해당하는 표준어를 찾는다
6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여 말한다	속담이나 격언, 다른 사람의 말 등을 적절히 인용하면서 말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적절성을 판단하여 말한다
영역	읽기		
	내용	기본	심화
1			
2			
3			
4			
5			
6	다양한 표현의 의미를 알아보며 읽는다	글쓴이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 속담, 관용 표현, 격언, 명언 등의 의미를 파악하며 글을 읽는다	속담, 관용 표현, 격언, 명언 등을 더 찾아보고 그 의미를 말한다

영역	쓰기		
	내용	기본	심화
1			
2			
3			
4			
5			
6			
영역	국어지식		
	내용	기본	심화
1			
2			
3			
4			
5	(4) 표준어와 방언의 개념을 안다 (5) 공식적인 상황에서 표준어를 사용한다 (6) 상황에 따라 방언과 표준어를 구별해서 사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표준어를 정하는 기준을 안다 표준어를 사용하여 친구들 앞에서 연설을 한다 표준어를 쓸 때와 방언을 쓸 때의 장단점에 대하여 친구들과 이야기한다	표준어와 방언의 관계를 말한다 다른 사람의 말에서 표준어가 아닌 것을 표준어로 고친다 주위에서 표준어나 방언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찾아보고, 그 이유를 말한다.
6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의 개념을 안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의 차이점을 안다	글에서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를 찾고 알맞은 고유어로 바꾼다

2. 교과용 도서 분석

1) 교과서 속담 분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국어 교과서 60권을 대상으로 어떤 속담이 어떤 영역에 어떻게 수록되었는지 <표Ⅲ-3>과 같이 살펴보았다.

<표Ⅲ-3> 교과서의 수록 속담

교과명	말들쓰	읽기	쓰기
1-1			
1-2		첫째 마당 쉽터 티끌 모아 태산, 바늘 가는 데 실 간다	
2-1		첫째 마당 쉽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웃는 낫에 침 뱉으랴	
2-2			
3-1		셋째마당쉽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 다	첫째마당쉽터 쌀은 쏴고 주워 담아 도 말은 하고 못 줍 는다
3-2	다섯째 마당 쉽터 꿩 대신 닭	둘째 마당쉽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4-1	첫째마당 뚝배기보다 장맛 바늘 가는 데 실 간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까?	넷째 마당 호박이 넝쿨째로 떨어 졌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병 주고 약 준다 갈수록 태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4-2			

교과명	말들쓰	읽기	쓰기
5-1			
5-2	첫 2. 표준어와 방언 쉽터		
6-1	다섯째 마당 2 속담이나 관 용표현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 미역국 먹었어요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무소식이 희소식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 이 곱다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6-2			

1, 2학년 교과서에는 두 학기 중 한 학기에만 읽기 교과서에 속담 2수 씩 쉽터에 수록되어 있고, 3학년에는 말하기·듣기에 한 학기에만 1수, 읽기는 1, 2학기에 1수씩 2수, 쓰기에 1수가 수록되어 있다. 대단원이나 소단원에 수록된 것이 아니라 쉽터에 수록된 점이 특이하다 하겠다. 즉 정규 국어학습 시간에 다루지는 않지만 아동들이 속담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4학년 1학기 말하기·듣기·쓰기에 속담 4수, 읽기에 속담 5수가 수록되어

있다. 4학년부터 국어 시간에 본격적인 속담이나 관용어에 대한 지도를 하게 되어있다.

5학년에는 표준어와 방언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하게 되어있고, 심화학습에 방언을 표준어로 바꾸어보는 활동을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4학년에 제시되었던 속담은 나와있지 않아서 학년간의 체계성과 위계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6학년에는 속담이나 관용 표현에 대한 학습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섯째 마당의 소단원에 속담이나 관용표현이라는 단원을 두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속담교육은 4학년부터야 시작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과정이나 저학년용 도서를 살펴보면, 속담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국어교육에서 속담에 대한 학습을 반드시 다루어야 할 것이다.

2) 제 7차 교사용 지도서 분석

제7차 교사용 지도서에는 4학년부터 속담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있어서 4~6학년 1·2학기 국어 교사용 지도서 내용은 <표Ⅲ-4> 와 같이 분석하였다.

〈표Ⅲ-4〉 교사용 지도서의 속담 내용

학기	말하기 · 듣기 · 쓰기	읽기
4-1	· 문화유산인 우리말과 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는다.	
4-2		
5-1	·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표준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 표준어와 방언의 가치를 알아보고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표준어로 말한다. · 우리 지역의 방언을 조사하고, 그에 해당하는 표준어를 찾는다.	
5-2	·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표준어를 사용하여 말한다(말하기) · 표준어를 사용하여 소개하는 말하기 · 표준어를 사용하여 말하기 · 공식적인 상황에서 표준어를 사용한다. 참고사항: 속담을 조사하고 ‘일의 순서’와 ‘말 조심’에 관한 속담 등으로 기준을 정하여 분류하기	

학기	말하기 · 듣기 · 쓰기	읽기
6-1	다섯째 마당 . 왜 가르치는가?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표현의 의미를 알고 상황에 어울리게 적절히 활용하여 말하고 쓰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1. 말 한마디라도-속담, 격언, 관용 표현에 대하여 알기 . 지도상의 유의점 -상황에 어울리게 활용 하는 것에 중점 . 참고 자료 . 국어 사전에서 속담이나 격언, 관용 표현을 찾는 일반적인 방법 3가지 . 속담이나 격언, 관용 표현의 뜻을 이용한 놀이 2종 제시 2. 오가는 정: 속담이나 격언 관용표현을 사용하여 말하기 .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이나 격언, 관용 표현을 사용하여 글쓰기 . 참고 자료 상황에 알맞은 속담 9수 수록. . 되돌아보기; 평가 방법 제시 충고 감사, 주장의 글쓰기, 평가 결과로 속담놀이 피드백 . 더 나아가기: 속담을 몸짓으로 표현하기, 속담에 알맞은 역할극 하기	첫째 마당 2교시 . 말과 관련된 속담 찾기 다섯째 마당 1. 말 한마디라도-속담의 중용성 속담의 유래담 . 지도의 유의점: 속담의 지식적인 주입에 치우치지 않는다 . 참고 자료 : 상황에 알맞은 속담 7수 역할극 대본 4개 2. 오가는 정 . 속담의 뜻 알기 . 글 속에서 속담이나 관용표현의 뜻 파악 . 되돌아보기 . 장기 과제로 제시하기 : 신문이나 관용 표현이 들어간 글 스크랩 하기 . 속담이나 관용 표현을 넣어 글 다시 쓰기 참고 자료: 속담 알아맞히기 놀이 . 제시속담을 기준에 맞게 나누어 조사하기 (동물, 친구, 웃음, 행복)

학기	말하기 · 듣기 · 쓰기	읽기
6-2	다섯째 마당-친교적 언어 사용 대단원 학습 목표 · 여러 가지 자료와 속담이나 격언, 시나 고사 성어 등을 사용하여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 대단원 교수 학습 계획 · 왜 가르치는가? 자신의 생각을 좀더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명언, 속담, 시나 고사 성어 등을 인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무엇을 가르치는가? · ‘여러 가지 자료’에서는 자료를 이용하는 법 알아보기 · 속담이나 격언, 시나 고사 성어 등을 사용하여 내 생각을 글로 쓰기 1차시 : 비슷한 속담 9수(참고자료) 3차시 : 속담이나 격언, 시나 고사성어를 사용하여 내 생각을 글로 써보기 · 되돌아보기 : 알맞은 속담이나 격언 2수 고르기 · 평가 : 어떤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이나 격언을 3개 이상 찾기 · 더 나아가기 : 상황에 맞는 속담, 격언 생각하기, 고쳐 쓰기 · 참고자료 : 속담 5수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교사용 지도서에는 속담 지도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4학년에는 사투리 속담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만 4학년 1학기 지도서에 말하기·듣기·쓰기에 우리말과 우리 글을 소중히 여기라는 포괄적인 내용만 있을 뿐이다.

5학년 내용에는 우리 지역의 방언을 조사하고, 그에 해당하는 표준어를 찾는 활동이 나온다. 그러나 이 활동도 방언을 표준어로 고치게 하는 활동이지, 방언의 소중함이나 가치에 대한 지도는 하게 되어있지 않다.

6학년에는 집중적으로 속담과 격언 등을 상황에 어울리게 활용하는 방법을 지도하게 되어있다. 지도 방법도 놀이, 글쓰기, 역할극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어있다.

3. 속담 지도 개선 방향

제주도는 삼다, 삼무, 삼보의 고장이다. 그 중에서 삼보는 언어, 식물, 바다를 일컫는 말인데 특히 제주 설화나 신화, 고유어, 민요, 속담 등은 소중한 구비문학의 보물창고로서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제주속담은 제주인의 실생활에 면면히 흘러오는 탐라정신을 바탕으로 이어져온 생활훈이다. 그만큼 가르침의 의미도 있고 또한 제주어로 표기된 언어 자료로서의 가치도 크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언어 자원이 있다 해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 명맥이 끊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 시급히 이뤄져야 할 연구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속담에 대한 교육인 것이다.²⁹⁾ 그러나 국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내용을 살펴봐도 다른 구비문학에 비하면 속담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부족하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속담

29) 고재환, 《제주속담총론》, 민속원, 2001, p.15.

을 채록하고 모으는 데에 정성을 기울인 반면 그것을 후세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쳐서 사용하게 하는 일에 소홀한 것을 들 수 있다. 그 이유는 다른 지방의 사투리나 속담은 각종 매스컴이나 작품 속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기회가 많은데 비하여 제주도는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가운데서 아동들에게 표준어를 사용하여 타 지역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게 하는 교육의 결과이다. 최근에 들어 지방 문화제³⁰⁾에서 사투리 경연대회 등을 열어서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하는 일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마저도 공연을 위한 것이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한 진정한 제주어 살리기라고는 보기 어렵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고학년에 속담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언어 생활은 고학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를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실시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교수·학습 전략으로는 저학년에 속담교육을 하기 위한 만화 그리기나 고사성어 수수께끼, 학습지 해결 등을 들 수 있다. 윤석중³¹⁾에 따르면 옛 속담을 우리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 이야기로 꾸미고 확산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야기 말미에 퀴즈, 반성적 글쓰기, 좀 더 알아보기, 상상하여 글쓰기, 비슷한 속담 찾기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학습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흥미와 욕구를 고려한 재미있는 학습을 통하여 우리 고유의 속담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30) 제주도에서는 매년 10월 탐라문화제 때 성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제주어 말하기 대회를 열고 있다.

31) 윤석중, «윤석중 할아버지와 함께 하는 속담여행», 아이북, 2001.

IV. 제주속담 교육자료의 선정

1. 자료 선정 기준

제주속담을 교육자료로서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이종철³²⁾이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 논자의 선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저학년의 학습 내용은 재미있고 쉬운 어휘로 이루어졌으며 사용빈도가 높은 속담이라야 한다. 아동들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어휘는 적게 사용되는 어휘보다 학습할 가치가 더 높을 것이다.³³⁾

어휘선정은 초등학교 아동들의 생활에 맞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문어 자료보다 구어자료를 중심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아동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범위가 넓은 어휘는 원활한 언어생활을 수행하는 도구로서의 가치가 크다.³⁴⁾

아동의 언어 발달 단계에 알맞은 속담이라야 한다. 학습자의 언어발달 단계를 조사할 때에 속담의 사용 부문에 대한 발달 단계도 조사되어야 한다. 모든 교육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게 계획되고 시행되어야 하므로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는 속담이 당연히 선정되어야 한다.³⁵⁾

속담 내용은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을 지닌 21세기의 주역으로 기르기 위해 금기보다는 권장율,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인 생활 태도를 다룬 것을 선정해야 한다.

수록된 속담의 주제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여러 부분을 다루어야 한다.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 등 국어교육 영역을 골고루 포함한 속담이라야 국어사용능력의 고른 신장을 기대할 수 있다.

32) 이종철, “교육용 속담의 선정 연구”, 《호서어문연구》 제5집, 1997. pp.16~19.

33) 위의 논문, p.16.

34) 위의 논문, p.19.

35) 위의 논문, p.19.

제주속담의 고유 의미가 잘 보존되는 속담이라야 한다. 기본 의미가 본래대로 잘 유지되는 속담의 기본 의미와 상당히 다르게 형태가 변형되어 쓰이는 속담은 속담의 의미가 시대와 맞지 않아서일 경우가 많다.³⁶⁾ 현대 언어생활에서 자주 쓰이고 시대에 맞는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더 교육적이므로 기본의미가 잘 유지되는 속담이 교육용 속담으로 적합하다

2. 선정 자료 분석

교육용 속담으로 선정한 속담 자료를 국어 영역에 알맞게 분석하여 지도할 속담을 <표 IV-1>과 같이 추출하였다.

<표 IV-1> 국어영역별 제주속담 자료

속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
동넛사름이 먼 켤당~		○		○		
글 실픈 놈 허천글 읽나.	○				○	
기시린 도새기가 돌아뻔~		○				
낭은 돌 의지, 돌은 낭 의지				○		
먹돌도 뿔람시민~	○					○
이녁코도 못쓸명~		○				
굳지 말렝 흐 말더 잘 굳나.				○		
공꺼엔 흐민 눈도 벌경~	○					
범벽에도 그릇 굿나.	○		○			
멜도 배설 싯나.		○	○	○		
입으로만 꿩이여, 매여.		○	○	○		
물 들어사 곱바리 잡나			○	○		

36) 위의 논문, p.19.

속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지식	문학
손이 놀민 입도 논다.	○		○			○
곶은 일 흐민~	○					
뭇 죽은 뱃되 들지말라.		○	○			
기도 못 흐는 게~	○					
아니 짚은 굴묵에 내나라		○				
애기 업개 말도 ~				○		
셔도 걱정, 엇어도 걱정.				○		
우턴은 못 속인다.	○		○			
곶은 낭 가은 되 산다.						
지 클른 건 몰르꼭~			○		○	
뱃치락으론 개도 안 떠린다.		○				

국어 시간에 직접 적용할 속담 자료로 속담 23수를 추출하였고, 듣기 영역 8수, 말하기 8수, 읽기 10수, 쓰기 영역 8수, 국어지식 2수, 문학 영역에 2수를 투입하였다.

위의 속담들도 대부분 중복 투입하여 총체적인 언어자료로 활용하였다.

3. 수업 모형 선정

본 연구에서는 1학년 아동들의 국어사용 능력을 신장시켜줄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으로 역할놀이학습, 문제해결학습, ICT를 활용한 수업을 해보았다.

1) 역할놀이 학습과 속담지도

역할놀이 학습은 아동들의 상호 대화를 통하여 언어를 새로 창조하고 서로 도와주며 협동하여 학습하는 동안에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는 아주 좋은

학습모형이다. 어휘의 화용적 활용의 지도 요소로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어휘 사용지도 속담이나 격언의 의미를 바로 알고, 말하기의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기에 좋은 학습법인 것이다.³⁷⁾

의사 소통 과정 중에 방언이나 속담을 활용하여 자기의 생각을 전하며 그 과정 중에서 국어사용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역할놀이 학습은 말하기와 듣기, 말하기와 쓰기, 읽기와 말하기, 문학과 언어사용 등 여러 영역의 통합적 지도를 가능하게 한다.³⁸⁾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언어기능이 분책 되어 따로 지도하게 되어 있으나 통합적, 종합적 지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교사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재구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어사용 능력의 지도는 언어의 실제성을 반영해야 하는 데 속담은 일상 생활 속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살아있는 언어여서 어린이들이 쉽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밀도 높은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이때 사용하는 현장 자료는 학생들로 하여금 기록된 자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온갖 상호작용들이 나타나는 참다운 의사소통 행위를 들을 수 있게 하고 그것은 학생들이 학습 상황 바깥에서 맞닥뜨리게 될 현장 말하기에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³⁹⁾

2) 문제해결 학습과 속담지도

교수·학습의 모든 활동은 언어를 통해서 이뤄지므로 언어경험을 도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⁴⁰⁾ 이 과정에서 언어경험을 많이 이끌어내려면 아동들의 배경지식을 활성화시켜야 하고,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려면 필수적으로 아동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제주 어린이들은 그들의 어휘 속에

37) 박성배, “초등학교의 어휘 지도 요소 선정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0. p.50.

38) 김재봉 외, 《초등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교육과학사, 2001.

39) 메리 언더우드, 《듣기교육》, 나라말, 입말 교육 연구회 옮김, 1999.

40) 김재봉, 앞의 책, p.9.

녹아있는 제주어와 속담이 학습 재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문제해결학습은 1학년 아동들의 발달 위계상 문학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문학에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학습모형이다. 더불어 어휘를 확장하고 언어의 미묘한 세계를 구체적으로 접하는 기회를 적절히 제공해준다. 그러므로 교사는 일상의 언어와 본시 학습을 연결 지어 학습동기를 유발시켜줄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

2) ICT를 활용한 속담 지도

오늘날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시대에는 다양한 교수학습 매체를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방안들이 요구된다. 기존의 학습 매체는 교과서가 유일했으나,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정보통신 관련 매체인 인터넷상의 웹 문서나 자료, 메일 등이 중요한 매체로 부상되고 있다. 학교 수업 현장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ICT활용교육이 새로운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만화나 다양한 삽화 기법을 도입한 것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전 학년, 전 교과, 전 차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동영상, 모듈 자료 등을 개발하여 에듀넷에 탑재한 것은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하겠다.

V. 제주속담 교육 방안

1. 아동의 속담 이해 능력

속담의 이해 능력은 학령기부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연령 증가에 따라 계속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¹⁾ 최근 Nippold & Haq(1996)의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속담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보면 속담이 사용되는 상황과 함께 속담을 제시하고 뜻을 고르는 사지택일형 과제에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들은 낯선 속담보다 친숙한 속담을, 추상적 속담보다 구체적인 속담을 더 쉽게 이해하였다.⁴²⁾ 어린 학생의 속담 이해 능력에 대해서는 학령기 초기 아동들도 적절한 과제로 평가하면 속담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과 속담의 이해는 청소년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 서로 상반된다.⁴³⁾ 속담을 문맥과 함께 제시하지 않고 속담의 뜻을 따로 설명하는 과제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아동이 속담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⁴⁾ 그러나 Honeck, Sowry & Voegtler의 연구에서는 7-9세 아동도 속담의 의미를 나타내는 적절한 그림을 2개 고르는 과제에서 속담 이해 정확도가 기대수준 이상이라는 것을 보고하였다.⁴⁵⁾ 우리 나라에서는 초등학교 언어교과과정에서 속담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속담은 1학년 교과서에서도 쉽터의 연습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5, 6학년 수업에서는 한 단원으로 편성되어 다루어질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내용은 속담을 사용하는 목적과 속담의 뜻에서부터 상황에 맞는 속담 말하기, 비슷하거나 뜻이 반대인 속담 찾기, 속

41) 오소정, “속담 이해 능력의 발달”, 이화여대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석사 논문, 2001. p.2.

42) 앞의 논문, p.2.

43) 앞의 논문, p.10.

44) 앞의 논문, p.10.

45) 앞의 논문, p.2.

담 속의 말 바꾸어보기, 속담이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기 등의 활동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⁴⁶⁾ 이러한 활동은 어휘능력과 상황에 적절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대상

연구 대상은 연구자가 담임하였던 삼양초등학교의 1학년 아동 34명과 신창초등학교 1학년 28명에 한한다. 연구 기간은 2002년 4월 1일부터 2003년 5월 말까지 1년 2개월 동안이고, 실제 수업은 1학년에만 실시했지만 제주어와 속담 교육에 대한 지도 방법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적용시킬 수 있다. 다른 학년에서도 수준에 맞게 적절히 적용하면 국어사용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국어교육 현장에 작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제주속담 지도 내용

1) 영역별 지도 내용

국어과 영역별로 마당별, 단원별 지도 내용을 추출하고 지도하였다. 지도 내용은 1학년을 여러 번 담임한 연구자의 경험과 학년 수준을 고려하여 알맞다고 생각되는 어휘를 중심으로 선정하였고, 주로 교과서의 삽화에 나와있는 낱말과 활용 빈도가 많은 언어를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그 내용은 <표 V-1>, <표 V-2>와 같다.

46) 교육인적자원부, «교사용 지도서 국어 6-1», 2001, p.15

<표 V-1> 1학년 1학기 지도 내용

마당명	소단원명	적용할 제주어나 제주속담 내용		
		말하기 · 듣기	읽기	쓰기
첫째 마당 : 알고 싶어요	1. 새 로 운 마음으로	낭-나무, 어머니-어명, 아버지-아방	나하고-나영 너하고-느영	차례-츠레 모아서-모영 받치고-바투곡
	2. 배 우 는 우리	아기-애기 이마-임탱이	개 미 - 개 엽 지 , 나무-낭, 소-쉐, 고구마-감저 노루-노리	옛날-연날, 와서-왕 참외-츨웨, 잡고-심곡
둘째 마당 : 느낌을 나누어요.	1. 재 미 있는 말	깡충깡충-톨락톨락 병아리-빙애기 예쁘게-곶닥히게	돼지-도새기 고양이-고냉이	홍내-송내, 아기-애기 아주머니-아지망 강아지-강생이
	2. 이 야 기 보따리	반짝반짝-빈적빈적 닭-득	나무-낭, 잡고-심곡 가득-ㄹ득	방글방글-빙삭빙삭 할머니-할망 꼬리-꼴랭이
셋째 마당 : 이렇게 생각해요.	1. 머 리 를 맞대고	말-뭉, 돼지-도새기 모자-모저(사포) 할아버지-하르방	배추-늑뭉 소-쉐 빨리-흔저	나무-낭, 잡-죤 말-뭉 나뭇잎-낭썰 장난감-방둥이
	2. 생 각 하 는 우리	파리-프리 고기-궤기	새-생이, 잡-죤, 아기-애기, 무척-하영	옛날-연날, 와서-왕 참외-츨웨, 잡고-심곡
넷째 마당 : 마음을 주고받아요	1. 마 음 을 담아서	다녀오겠습니다- 갓당오쿠다. 그림-기림	장난감-방둥이 아버지-아방 넷가-넷창, 꽃- 고장(꽃)	부르며-불르명 조금만-흐끔만, 힘-심 그러니까-경흐니까
	2. 다 정 한 친구	아주머니 아주망 합니다.-힙니다	깜짝-추물락 얼굴-놋, 양지 사람-사름	하는데-흐는디 와주면-와주민 무척-하영, 모두-몬딱

〈표 V-2〉 1학년 2학기 지도 내용

마당명	소단원명	적용할 제주어나 제주속담 내용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첫째 마당: 상상의 날개를 펴요	1.보고 듣고 느끼고	하나-흐나 팔-풋 개미-개염 지 <고망을 파도 흔 고망을 파라>	달-덜 <그 아방에 그 아덜, 그 어명에 그 딸> <가냐귀도 어명아 흔 다>	<나무렌 낭에 눈 걸 린다> 그림 그리기 <굳지 말렐 흔 말 더 잘 끝나.>
	2.내가 만드는 이야기	세 개-식 개 <돌아벤 도새기 가 기시런 도새 기 나무렌다>속 담 만들기	<글 실폰 놔 허천 글 읽나> 길-질 <물 죽은 밧되 들지 말라>	<니가 베고프민 놔도 베고픈다> 노랫말 만 들기
둘째 마당: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1.생각이 서로 다를 때	<지 글른 건 물 르꼭 놔 글른 건 안다>	<흐당 말민 놔 웃나> <흐렐 흐민 말앗당 말렐 흐민 더 흔다>	<놈이 코 쓸쟁 말앙 이녀 코나 쓸라> 만화 그리기
	2.하나 되는 우리	<코꼬망이 둘이 매 숨을 쉬주>	<준디는 게 약인디> <준년 애기 낭 사을 이민 물에 든다.>	<동넛 사름이 먼 켜 당 보단 낫나> 마인드 맵 하기
셋째 마당: 내가 만들었어요	1.재미가 술술	<물 한되서 물 못 굴린다.> <빋차락으로 개 도 안 띄린다>	<짐 진놈이 팡을 좇 나> <흔들에 개역 식 번 흐여 먹으민 집안 망흔다>	<물 들어서 곰바리 잡나> 겪은 일 쓰기
	2.즐거운 하루	<범벅에도 그릇 긋나> <독도 지 압씩 근어먹나>	<죽은 놔 등찬다> <터진 그물로 멜 거 리젠 흔다>	<멜도 베설 싯나> 짧 은 글짓기 하기
넷째 마당: 바르게 전해요	1. 하나씩 차근차근	<물 죽은 밧되 들지 말라> <먹돌도 딸랍시 민 고망난다>	<흙센 흐영 글른되 엇나> <물 들어서 곰바리 잡나>	<구실이 닛말이라도 고망이 엇으민 못쎄 다>
	2.살펴보고 정리하여	<떡은 돌릴수록 죽아지곡, 말은 돌릴수록 커진다 >	<먹는 갠 술치곡, 주 끄는 갠 준다>	<ㄴ들이 먹곡, ㄴ들이 쓰라>

마당명	소단원명	적용할 제주어나 제주속담 내용		
		말하기 · 듣기	읽기	쓰기
다섯째 마당: 어깨동무를 해요	1. 손에 손잡고	남 칭찬하기 <곶은 낭은 가운 되 산다> <공꺼 엔 흥민 눈도 별 경 코도 별경>	<멜도 베설 싯나>	<낭은 돌 의지, 돌은 낭 의지> <손이 놀민 입도 논다 >

2) 어휘 지도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음운, 단어, 문장, 문단, 텍스트, 문체 등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지니고 이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국어 교육은 학생들의 국어사용능력을 신장시켜주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이러한 지식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⁴⁷⁾ 속담을 지도할 때에도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어휘를 가르쳐야 한다.

3) 듣기 · 말하기 지도

Piaget에 의하면 초등학교 1학년은 전 조작적 사고 단계(pre-operational thought, 2-7세)에서 구체적 조작단계(7-11세)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 이 시기에는 사고의 모순이 줄어들고, 차차 일반화 할 수 있는 능력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어과 교육의 목표를 국어사용능력 신장, 즉 의사소통능력 신장으로 해석한다면 언어지도는 언어의 구조보다 언어의 작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의사소통능력은 현실적인 언어사용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언어사용의 양상에서 추출된 언어사용 기능들이 순환적 구조로 조직되어야 한다. 저학년에서

47) 교육인적자원부, «교사용 지도서 국어 6-1», p.382.

는 여러 사물과 동작에 관하여 정확한 이름과 적합한 표현을 찾아내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 정서와 감정을 나타내는 그림을 보여주거나 얼굴 표정을 지어 보이고 난 다음 거기에 적합한 낱말을 찾아내어 사용하는 활동도 효과가 있다.⁴⁸⁾ 말하기는 의사소통과 감정표현과 문화창조 기능을 두루 수행한다.⁴⁹⁾

4) 쓰기 지도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문자 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확한 철자를 알고 의미에 관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미의 의미 이해에 대한 지도 요소 중 초등학교 학습 내용, 여러 가지 표현 방법과 다양한 표현 의미를 익힐 수 있는 쓰기 교수 학습이 되어야 한다. 세부적인 전략을 살펴보면 다양한 어휘를 유발하는 쓰기 전 활동을 개발하고 쓰기 중 유창성을 길러주기 위해 주제에 대해 부담 없이 가능한 한 많이 쓰기, 제주어를 표준어로, 표준어를 제주어로 바꾸어보기, 자기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적인 글을 쓰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흥미에 맞는 적절한 과제를 준다. 짧은 글짓기는 어휘력의 질적 심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효과적이다. 짧은 글짓기를 통하여 진정한 어휘 습득이 이루어지며, 의미변별능력과 적절한 어휘사용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알맞은 낱말 선택으로 효과적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는 1학년부터 짧은 글짓기를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⁵⁰⁾

48) 김재봉, 앞의 책, p.243.

49) 김재봉, 앞의 책, p.250.

50) 박성배, 앞의 논문, p.64.

4. 제주속담 교육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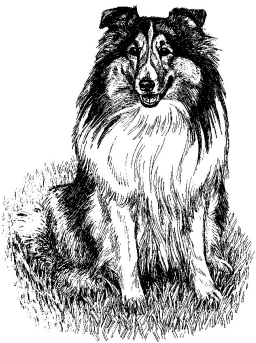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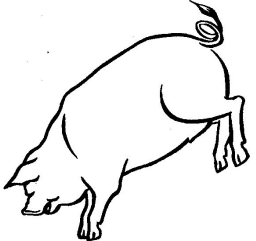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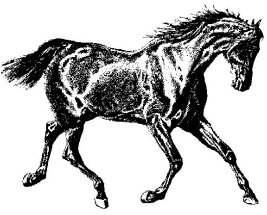
1) 그림카드로 제주어와 제주속담을 가르치기

<지도 방법>

짧은 시간에 제주어 낱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시키기 위해 시도한 방법이다. 자투리 시간에 많은 어휘를 집중적으로 익히는 데 교사의 주도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아쉬움은 있으나 생소한 단어를 익히기에는 효과적이었다. 먼저 교과서 삽화로 제시되어있는 그림들을 제주어로 공부한 다음에 교사가 관련 속담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다음에 빈칸에 표준어와 제주어를 따라서 쓰도록 해보았다. 그림 → 낱말 → 문장으로 접하게 하니까 큰 무리 없이 학습에 잘 따라 주었다. 그게 잘 안 되는 아동에게는 말로만 말하고 관련 삽화를 색칠하거나 그려보게 하는 등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지도한 후의 느낌>

아동들이 좋아하는 동물 그림을 표준어로 이미 읽고 쓸 수 있는 데 다시 읽고 쓰는 활동을 하는 것은 아동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아동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단어 선정의 필요성이 새겼다. 한 예로 ‘도새기’라는 낱말은 그날 급식 차림표와 관련지어 제주어로 말하고 쓸 수 있도록 가르쳐주니까 아주 흥미 있게 모든 아이들이 학습에 참여하였다. 다른 차림표도 말해달라고 하였지만 적절한 단어가 없는 것이 아쉬웠고, 아동의 생활 경험에서 학습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교육효과도 높음을 실감하였다.

지도 날짜	그림	표준어	제주어	관계 있는 속담
3.11		강아지	강생이	것 먹을 때는 개도 안 다들린다.
3.18		돼지	도새기	기시린 득새기가 돌아맨 도새기 나무랜다.
3.25		말	몰	몰 죽은 밧되 들지 말라.

〈그림 V -1〉 제주속담 그림카드

2) 파워포인트 자료를 활용한 속담 지도

<지도 방법>

1학년 1학기 때에는 교과서에 제시되어있는 삽화를 제주어로 지도하였다. 먼저 교과서 삽화에 나와있는 낱말들을 제주어로 공부하고 그와 관계 있는 속담들을 들려주는 데 여러 가지 역할놀이나 동화구연, 노래 등으로 접근하여 아동들의 경험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였다.

수업시간과 관련해서는 매 국어시간마다 한 낱말씩 선정하여 도입부분이나 정리단계에서 지도하였다. 주로 파워포인트 자료를 이용하고 때로는 낱말카드를 이용하여서 지도하였는데 파워포인트 자료가 더욱 흥미를 끌 수 있었다. 낱말 카드는 아동이 직접 적도록 하는 것도 좋았다.

<지도한 후의 느낌>

파워포인트 자료는 시각적인 효과와 청각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고 게임 형식이나 퀴즈로 접근하니, 아동들의 집중력과 학습 의욕을 높일 수 있고, 다른 활동(역할놀이 등)과 연관지어 활동하기에 편하였다. 그러나 자료의 제작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서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였다.



< 그림 V-2> 파워포인트 자료

3) 제주어 낱말과 문장 익히기

<지도 방법>

실제의 담화 과정에서 가장 어울리는 낱말이나 문장을 익히는 방법으로 실시한 지도 방법이다. 먼저 문장이나 글 전체에서 의미를 예측하고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 지 확장하여 짧은 글이나 경험한 글짓기로 시도하였다. 이 활동을 통하여 실제 발표 시간이나 쓰기 활동에 속담을 활용하여 어휘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러나 아동의 담화과정이나 글짓기 작품에 보면 속담의 뜻을 잘못 사용하거나, 왜곡시키는 일이 있어서 지도에 유의해야 하는 활동이었다.⁵¹⁾

<지도한 후의 느낌>

이 활동은 다른 활동에 비하여 아동들의 흥미를 덜 느꼈고 교사 중심의 학습이어서 그런지 아동 활동이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또한 쓰기 전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쓸거리를 정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보였다. 앞으로는 자료 선정에 유의하고 동 활동을 조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4) 역할극 대본 읽기를 통한 제주속담 지도

<지도 방법>

등 하교시간에 다른 곳에 들렀다가 지각한 경험을 말해본 다음에 짝과 배역을 바꾸어가며 역할극 대본을 읽는다. 다시 글의 내용을 파악하며 개인별로

51) 실제 글짓기를 할 때 ‘멜도 베설 싯나’라는 속담의 의미를 잘못 생각하여 ‘멜도 베설 싯나엔 놀리지마’ 처럼 왜곡된 경우가 관찰되었다

읽는다. 읽어가면서 잘 모르는 낱말에 밑줄을 긋고 모둠 학습으로 어떤 뜻을 나타내는 낱말인지 예상해본다. 그 다음에 다시 전체학습으로 어려운 낱말을 익힌다. 모둠 별로 앞에 나와서 배역에 맞게 대본을 읽은 후 속담 내용에 대한 토의를 한 다음 마지막 활동으로 역할놀이를 한다.

<지도한 후의 느낌>

아동들이 처음 접하는 어휘들이어서 속담 상황에 대한 이해는 어렵지만, 역할극 속에서 상황 맥락을 짐작하여 대충은 이해하는 것 같다. 한번 지도로 미흡한 면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교사가 수시로 반복 사용하다보니 아동들의 대화 중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너무 생소하게 받아들이고 흥미위주로만 제주속담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림 V-3> 역할놀이 사진

<역할극 대본>

선생님 : 오늘 아침에는 ‘뭉 죽은 밧되 든’ 친구들이 있어요.

아 동 : 그게 뭐예요?

선생님 : 으응, 제주속담에 ‘뭉 죽은 밧되 들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만 ‘뭉 죽은 밧되 간 친구가 있어요.

아 동 : ‘뭉 죽은 밧되’가 뭐예요?

선생님 : 글썄, 무얼까? 여러분도 알고 싶어요?

아 동 : 네.

선생님 : 그러면 지금부터 텔레비전을 보세요. 돌하르방이 뭉 죽은 밧되
들지 말라’는 속담을 가르쳐줄 거예요. 다같이 돌하르방을 불러봅시
다. 하나, 둘 셋,

아 동 : 돌하르방, 가르쳐 주세요.

돌하르방 (PPT자료) : ‘뭉 죽은 밧되 들지 말라’는 말 죽은 밧에 가지 말
라는 말이지만 그 뜻은 ‘헛길을 걸어 탄전을 부리면
이득이 없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 잘 알겠어요? 오늘 아침에 문성이가 지각했어요. 왜냐하면 학
교 앞 문방구에 오락기가 있지요? 다른 형들이 오락하는 것을 구경
하느라 그만 학교에 늦은 거예요. 자기는 오락도 하지 못하고 지각
하니 얻은 게 없지요? 자 이렇게 ‘바른 길로 똑바로 가라’는 뜻을
재미있게 나타낸 제주 속담, 뭐라고요?

아 동 : 뭉 죽은 뭉 뭉 뭉.

선생님 : 자, 천천히 따라 읽어봅시다. ‘뭉 죽은 밧되 들지 말라’

아 동 : 뭉 죽은 밧되 들지 말라.

5) 모의 인터뷰나 역할극을 통한 제주속담 지도

아동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역할놀이 중에 속담을 활용하여 대사를 만들어 보게 하는 활동이다.



〈그림 V-4〉 역할극과 모의 인터뷰 모습

<지도 방법>

교과서를 읽어본 후 자기 주장에 따른 이유나 근거를 대며 말하게 하는 학습 방법이다. 1학년 2학기 읽기 둘째 마당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는 단원을 지도하면서 쥐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게 하려고 역할극을 하고 난 후 모의 인터뷰를 해보았다.

<지도한 후의 및 느낌>

막대인형이나 가면, 간단한 의상 등을 이용하여 생활 장면의 모습을 역할놀이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역할놀이는 글자를 익히지 못한 아동들도 흥미 있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었다. 학습과 연계하여 모의 인터뷰나 역할놀이를 하게 하니 글이나 글짓기에서도 살아있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글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표현하며, 창의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어휘력이 향상되고 우리말

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 같았다. 거의 모든 어린이가 처음 접하는 활동이어서 신기하고 재미있어 했다. 특히 그림 카드와 병행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싶은 사물의 모습을 그리게 하는 것도 좋은 학습 방법이었다. 어린이들의 반응은 ‘웃기다. 재미있다. 또 공부하고싶다.’ 등으로 나타나서 교사가 알맞은 학습재 선정과 적절한 교수학습 전략을 구사하며 아동의 흥미를 유발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6) 아이디어 생성 지도

<지도 방법>

쓰기 전 활동으로서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인식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하는 단계이다. 이 때는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나타내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야 하고 쓸 내용을 풍부하게 떠올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쓰기 활동을 할 때에는 언제나 움직임 활동 시간을 가졌다. 움직임 활동으로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고 학습주제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 가끔 쓰기 주제와 관련 있는 역할놀이를 실시하여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 때 알맞은 조건의 쓰기 과제⁵²⁾를 고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1학년 아동들에게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쓰기 전 활동을 다양하게 해주는 것이 창의적인 작품으로 나타나고 무엇보다 쓰는 활동이 지겹지 않고 즐거운 활동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도한 후의 느낌>

‘멜도 배설 싹나.’라는 속담 제재가 어려웠던 것 같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52) 신현재외 《국어과 협동학습 방안》, 박이정, 2003, p.67.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반응이 활발하지 못했다. 아동들의 경험과 관계가 적어서 다음부터는 아동의 생활 주변에 있는 소재로 된 속담을 적용해야하겠다.

제주속담공부	제1학년 1반 이름 (오영혜)
제주속담: 멜도 베설 싯나. 표준어: 멸치도 창자가 있다.	
뜻: 아직 작고 어리다고 나무랄 때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할 때 쓰는 속담입니다.	
‘멜도 베설 싯나.’를 넣어서 짧은 글을 지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중에서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생각해서 그림으로 그리거나 이름을 써보세요.	
짧은 글: “오빠, 나한테 놀리지마. 멜도 베설 이 싯덴.”.....	
나는 작지만 하늘만큼 소중해요.	
핀 동전 연필 열쇠 손가락	
지우개 손톱 거울 악 머리빗	
♡ 소중한 제주어, 알아두면 좋아요. 멜: 멸치 베설: 창자 싯나: 있나	

<그림 V-5> 아이디어 생성하기의 예

7) 쓰기 지도

<지도 방법>

아동이 손바닥 학습지에 글을 적으면 교사가 ‘입으로만 꿩이여, 매여’라는 속담을 적어준다.

속담의 의미를 추측해본다.

속담 상황과 비슷한 경험에 대하여 짝과 이야기를 나눈다.

속담 속의 어려운 제주어를 알아본다.

속담과 관련되게 자기가 겪은 일을 한 문장으로 써본다.

교사 : 오늘 내 마음을 크레파스로 나타낸다면 무슨 색깔로 칠하면 좋을까요?

아동 : 고동색이에요.

교사 : 고동색? 왜? 멋진 다람쥐인가?

아동 : 아니어요. 그냥 미운 고동색이에요.

교사 : 왜? 친구랑 싸운 거로구나.

아동 : 역할놀이 하면서 수진이랑 싸웠어요.

교사 : 왜 싸웠는지 손바닥 학습지에 적어볼래? 다 적으면 이어서 글로 써보자. 그러면 선생님이 마음의 색깔을 예쁜 색깔로 바꾸어 줄게요.

아동 : 선생님, 역할놀이 때 설문대 할망 시켜주세요.

교사 : 그래, 찬찬히 생각해서 쓰도록 해라

<지도한 후의 느낌>

1학년 아동인 경우 개요 짜거나 쓰기 전 활동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쓰기 단계에서는 흥미를 잃어버리고 도중에 포기하는 아동이 많았다. 그래서 아동의 생활경험에서 학습 주제를 이끌어내고 아동이 겪은 일을 손바닥 학습지에 쓰게 하니까 구체적인 문장을 쓸 수 있어서 막연하게 무엇을 쓸 지 몰라 망설이는 일이 줄어들었다. 또한 색연필로 자기 손바닥을 본뜨게 하고 글로 써보는 과정에서 친구와 다투어서 속상했던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다. 때로는 쓰기 전 활동으로 제주속담을 들려주고 난 후에 그 장면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게 하니까 쓰기 단계에서 흥미를 잃는 일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자기가 겪은 일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쓰거나 완전한 문장으로 쓰게 할 때에 손바닥 학습장을 사용해보니까 쓸거리나 중심내용에 대한 설명이 명확해지고 아울러 글쓰기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즐겁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제주속담공부	제1학년 1반 이름 (정 은 시)
제주속담: 입으로만 껴이며, 매여 표출어: 입으로만 껴이다, 매다 한다.	
뜻: 자기가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이러글저러글 할 때 사용하는 속담입니다.	
★ 자기가 겪었던 일을 생각하며 간단히 적어보고, 그때 느낀 생각을 되살려 보세요.	

<그림 V-6> 손바닥 학습지

8) 속담 내용 이해하기

(1) 지도 방법

속담의 내용과 관련 있는 동화를 듣는다. 이때 동화는 이솝우화를 교사가 재구성하여 들려주고 나서 동화의 내용을 파악하고 자기의 경험과 관련과 비교해본다. 그 다음으로 동화의 상황과 유사한 속담을 찾아보고 자기가 겪은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본다. 마지막으로 배운 속담을 다른 말로 바꾸어 꾸며본다.

(2) 들려준 동화

돼지와 낙타

어느 날, 돼지와 낙타가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얼마 안 가 능금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낙타는 능금나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서더니, 신바람이 나서 목을 길게 뻗치곤 높은 가지에 주렁주렁 달려 있는 능금을 맛있게 따먹었습니다. 돼지는 군침을 흘리면서 낙타가 먹는 것을 구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낙타야, 나도 몹시 먹고 싶지만 키가 작아서 따먹을 수 없구나.”

“그래, 그것 참 안 됐구나. 누가 너보고 키 크지 말라고 했니?”

낙타는 능금을 먹으면서 그저 건성으로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돼지와 낙타는 또 바람을 쐬러 나갔더니 이번에는 울타리를 뺑 둘러친 고구마밭이 나타났습니다. 돼지는 울타리 안으로 뱅글 들어가서, 고구마를 맛있게 먹어댔습니다.

“돼지야, 나도 몹시 먹고 싶지만 키가 너무 커서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그래, 키가 너무 커도 불편할 때가 있구나. 안됐다.”

돼지도 건성으로 이렇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3) 평가

- ※ 이 이야기 속의 돼지처럼 나도 속상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 ※ 이 이야기 속의 내용과 비슷한 경험을 생각해볼까요?
- ※ 이 이야기와 비슷한 속담을 골라서 0표 하시오 (2개)

가. 돌아맨 도새기가 기사린 도새기 나무랜다. ()
나. 낭은 낭 의지, 들은 돌 의지 ()
다. 나무랜 낭에 눈 걸린다.()
라. 동넛 사름이 먼 켜당보단 낫나 ()

(4) 지도한 후의 느낌

동화의 내용을 파악하고 자기의 경험과 관련지어 생각해보게 하는 활동인데 동화의 내용 파악보다는 자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속상했을 때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에 몇몇 아동은 흥미가 아주 높았지만 다수의 아동은 학습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무를 그리는 경우가 있었다.

제주속담공부	제1학년 1반 이름 (이유정)
제주속담: 나무렌 남에 눈 걸린다. 표준어: 나무라던 나무에 눈 걸린다.	
뜻: 친구나 다른 사람이 업신여길 때 언젠가는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니까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할 때 쓰는 속담입니다.	
‘나무렌 남에 눈 걸린다’라는 속담처럼 다른 사람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무시당했을 때의 속상한 내 얼굴을 그려보세요.	
	
♪ 소중한 제주어 알아두면 좋아요. 나무렌: 나무라는 남에: 나무에	

〈그림 V-7〉 속담 관련 학습 그림

9) 이야기를 듣고 속담을 바꾸어보기

(1) 지도 방법

속담의 내용과 관련 있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때 들려주는 속담의 등장인물을 의인화하여 교사가 재구성하여 들려준다.

설화의 내용을 파악하고 자기의 경험과 관련지어 본다.

설화의 상황과 유사한 속담을 찾아본다.

자기가 겪은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본다.

배운 속담을 다른 말로 바꾸어 꾸며본다.

(2) 지도한 후의 느낌

속담 중에 아동들이 좋아하는 동물인 돼지가 등장해서 무척 재미있어 했다. 속담의 장면을 움직임 활동으로 나타내도록 했더니 속담의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았다. 역할놀이를 여러 번 시도하다 보니까 다양한 소품들을 스스로 제작하여 발표하게 되었고, 일상 생활에서도 속담을 활용하여 말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역할놀이 학습을 많이 해야 하겠다.

(3) 속담 활용 학습지의 예

제주속담 공부 7	제1학년 장미반 이름(고 하 늘)
제주속담 : 돌아멘 도새기가 기시린 도새기 타령한다.	
뜻: 자기의 분수는 모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쓰는 말입니다.	
‘돌아멘 도새기가 기시린 도새기 타령 한다 .와 비슷한 속담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말해보세요. * 자기도 달리기 꼴등 해시명 4등한 친구 나무렌다. * 후보선수가 골인 못놓은 안정환 선수 놀린다. * 자기 키도 작으명 키 작은 사름 나무렌다. * 받아쓰기 40점 맞은 사름이 60점 받은 사름 비웃는다 돌아멘: 매단 도새기: 돼지 기시린: 그을린 한다: 한다	

10) 경험한 일 쓰기 지도

(1) 지도 방법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곰바리를 잡으러 갔던 경험이나 바닷가에 놀러 갔던 경험을 말해본다.

속담의 상황을 역할극으로 재연해본다. 이때 역할극 대본은 교사가 제시한다.

속담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나의 사례와 관련지어 생각해본다.

대신 바꾸어 넣을 수 있는 말을 바꾸어 써본다.

(2) 지도한 후의 느낌

바닷가에 가본 경험이 많아서인지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활발했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바닷가에 낙지 잡으러 가거나 헤엄치러갔던 경험이 많았다. 그 까닭은 지리적으로 해수욕장이 가까이 있고,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여러 번 실시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나 ‘곰바리’라는 낱말을 제주어로 알고 있는 아동은 한 명도 없었다.

(3) 속담 활용 학습지의 예

제주속담 공부 8	제1학년 장미반 이름(김 민 지)
제주속담 : 물 들어사 곶바리 잡나	
뜻 : 놀기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다 닥쳐야 허둥대는 모습을 빗댄 말입니다.	
‘물 들어사 곶바리 잡은 적’이 있나요? 그 때의 경험을 자세하게 써보세요. 언제 : 지난 화요일날에 어디에서 : 우리 집에서 누구와 : 동생 민희와 무엇을 : 숙제를 미리 안해서 어떻게 : 엄마한테 혼났다. 제 목 : 물 들어사 곶바리 잡나 지난 화요일 날이었다. 엄마가 딸기밭에 가시면서 동생하고 숙제를 다 하라고 했다. 그런데 실컷 놀다가 엄마가 올 때가 되니까 그때서야 숙제를 후다닥 하고있는데 그만 엄마가 오셨다.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다. 물 들어사 곶바리 잡다가 혼났다. 들어사 : 들어야 곶바리 : 보말	

11) 비슷한 속담 찾기

(1) 지도 방법

친구와 다투었던 경험을 말해본다. 왜 다투었는지 생각해본다.

친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가장 화가 났는지 생각해본다.

친구가 나의 약점을 놀렸을 때 어울리는 속담을 찾아본다.

지금까지 배운 속담 중에서 뜻이 비슷한 속담을 찾아본다.

(2) 지도한 후의 느낌

속담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을 때에는 비슷한 속담을 찾기가 쉬운 데, 그러지 못할 때에는 어려운 활동이었다. 본 학습은 여러 가지 속담에 대한 공부를 다한 다음에 총체적인 이해도를 알아보는 학습으로서 심화학습으로만 실시하였다.

(3) 속담 활용 학습지의 예

제주속담 공부 12	제1학년 장미반 이름(고수연)
제주속담 : 지 글른 건 몰르곡, 놈 글른 건 안다.	
뜻 : 자기 중심의 편견과 처신을 꼬집을 때	
‘지 글른 건 몰르곡, 놈 글른 건 안다’라는 속담과 비슷한 속담을 찾아서 0표 해보세요. 기시린 도새기가 돌아멘 도새기 타령한다. (○) 것 먹을 땐 개도 안 다들린다. () 나무렌 낭에 눈 걸린다. () 놈이 코 슬쟁 말앙 이녁 코나 쓸라. (○) 지 : 자기 글른 : 틀린 몰르곡 : 모르고	

5. 제주속담 지도 교수·학습 과정안

1) 역할놀이 학습 교수·학습 과정안

제주속담에 대한 문제 상황을 탐색하고 역할놀이를 실연한 후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학습으로 역할놀이 학습을 전개하였다. 연구자의 경험으로는 1학년 아동들이 역할놀이를 할 때에 대본과 소품은 교사가 제공하고 배역 선정이나 연습은 아동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았다. 본시에서는 2시간을 통합 운영하였으나, 80분 수업만으로는 충분한 실연을 하기에 시간이 모자랐다.

<역할놀이 학습 교수·학습 과정안>

교과	1학년 2학기 말하기듣기	마당명	넷째 마당		
		소단원명	1. 하나씩 차근차근 1/2 차시	수업 전개 방법	역할놀이 학습 유형
학습 목표	속담을 읽고 그 상황을 역할극으로 꾸밀 수 있다.				
교수·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문제 상황 확인	<글 실픈 놈 허천 글 읽나> 를 아동들에게 제시한다 . 속담 속에 들어 있는 제주어에 대한 공부를 한다.		5'	PPT 자료
상황 설정 하기	문제 상황 분석	-실픈 허천글- . 속담의 상황이나 느낀 점 등을 발표한다. -어떤 장면이 생각나나요? -우리 반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 이 속담이 적용될 만한 가상 상 황을 꾸며본다		5'	이때 말의 재 미, 뜻의 전달 등을 유도한다

교수 · 학습과정		교수 · 학습활동	시간	학습 자료 및 유의점
실연 하기	준비 및 연습하기	· 역할놀이를 준비하기 · 배역 선정, 필요한 준비물 알아 보기	20'	역할놀이 대본은 교사가 제시한다. 모둠 실연 후 충 분한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역할 분석 및 선정	· 대사 준비 · 역할 선정 및 인물의 성격 분석	20'	
	연습	· 개인별 연습하기-모둠별 연습하 기-모둠에서 실연하기-토의하기 · 역할극을 볼 때 주의할 점은 무 엇인가?		
	실연 준비하기	· 역할극을 해본다. · 모둠별로 나와서 실연 준비하기	5'	
	실연하기	· 각 모둠에서 한 명씩 나와서 실 연해보기 · 역할극 하고 난 후의 느낌과 잘 된 점, 고칠 점 알아보기	10'	
정리	· 말의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질문하기 · 속담의 의미 파악 확인하기 · 속담으로 놀자. (선택 학습지 해 결)	10'		
	평가 발전	· 속담 만들어보기, · 속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어 보기	5'	
평가 하기		· 속담이 적용되었을 때의 좋은 점 알기		
	평가	· 역할극과 비슷한 상황에 어울리 는 속담은 무엇인가?		

<수행평가>

1. 이번 시간에 학습한 속담의 상황을 이해하는가?
2. 역할놀이에서 알맞은 말을 사용하여 대화할 수 있는가?

2) 문제해결학습 모형 교수·학습 과정안

제주속담에 대한 지식이나 개념을 학습하는 데 알맞은 학습활동으로 문제해결학습을 적용하였다. 본시에서는 개별 학습, 짝 활동, 모둠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다. 1학년 아동들에게 문제해결학습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전 학습 훈련을 꾸준히 하였고, 발문을 자세하게 하여 아동의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역할놀이 학습 교수·학습 과정안>

교과	1학년 2학기 말하기듣기	마당명	넷째 마당		
		소단원명	1. 하나씩 차근차근 2/2차시	수업 전개 방법	문제해결학습유형
학습 목표	글을 읽고 알게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교수·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자료 및 유의점
문제 확인	동기유발 문제상황 제시	▣ 제주어 알아맞히기 게임하기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고구마(감저)에 대한에니메이션을 보고 생각하여 내용 예측하기 ▣ 공부할 문제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무엇인 가요?		5'	ppt 자료 www.tnara.net 디지털 카메라
	학습 문제 확인 학습계획 세우기	▣ 학습 계획 및 학습 절차 확인 -속담을 들어본 경험 발표하기 -속담을 사용하면 말할 때 어떤 점 이 좋은가? -어떤 차례로 공부할 것인가?		5'	

교수 · 학습과정		교수 · 학습활동	시간	학습 자료 및 유의점
문제 탐구	개념 도입	■ 속담이란 어떤 말인가 ■ 속담의 비밀 알아보기	5'	플라스틱 병 속담 카드
	문제 해결 방법 찾기 1	. 선생님의 비밀통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 어떤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적힌 종이 ■ 교과서 제재의 제목을 보고 중요한 내용 예측하기 -하나씩 공부해야 되요. -차근차근 천천히 공부해요 - 동물이름이 들어간 속담 찾기	5'	
문제 해결 활동	학습문제 해결하기	■ 작은 책에 알맞은 답을 적으면서 친구들에게 들려줄 말을 생각하기 -지식 맵이나 생각 그물, 내 말을 들어봐. 내가 만든 작은 책, tp 자료 등	20'	작은 책
문제 해결	문제 해결 방법 찾기 2	■ 병 속에 담긴 비밀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 낱말들을 모아서 무엇인지 알아 맞춰보자	10'	플라스틱 검 통, 속담 낱말 카드
	학습결과 알아보기	■ 짝과 비교하고 같은 점과 다른 점 찾아보기 - 내 것은 평이 나오는 데 짝은 물이 나와요 - 나에게는 굼벵이가 나와요 ■ 속담 찾기	5'	속담카드
	학습문제 연습하기	■ 말할 내용 정리하기	5'	학습지

일반화	학습결과 알아보기	▣ 제주속담에 관하여 알게 된 것을 말해보기	5'	학습지
	정리	▣ 새로 알게 된 것을 말하는 방 법 알기 -똑똑한 발음, 바른 자세, 알맞은 목소리	3'	PPT 자료
	차시 예고	▣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 알아보기	2'	

< 지도하고 난 후의 느낌 >

이 활동은 아동의 사고력 증진, 새로운 단어를 발견하는 기쁨, 언어조작능력,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사전에 기본 학습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하는 과정이 어려웠고, 소집단 학습을 자주 해보아야 가능한 수업이었다. 그러나 아동들이 스스로 도와가며 진지하게 학습에 임하는 모습이 무척 좋았다. 1학년에게도 문제해결학습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낀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

3) ICT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아동들의 제주속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습 방법으로 ICT활용 교수·학습을 실시하였다. PPT를 활용하여 동영상이나 소리 파일이 들어간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한 후 교단 선진화 교실(1교사 1컴퓨터 환경)에서 수업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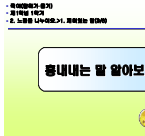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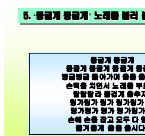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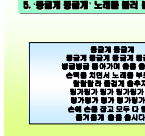
(1) 수업 설계서의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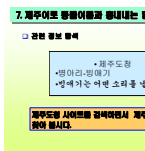
교과명	국어	학기	1-1		단원	2. 느낌을 나누어요.	
소단원	1) 재미있는 말			학습 주제	② 흉내내는 말의 쓰임 알아보기		
차시	1/6	쪽수	pp. 24 ~27	적용 모형	창의성 계발 학습 모형	교실 환경	교단선진화 교실
학습 목표	· 시에서 흉내내는 말의 쓰임을 알 수 있다.					ICT활용 유형	수업 자료
선수 학습 요소	교과 영역				ICT 소양		
	· 그림에 나타난 장면이나 상황 파악하기 · 상황에 알맞은 흉내내는 말 찾아보기 · 제주어로 흉내내는 말 알아보기				· 제주도청 제주어 코너에서 제주어를 찾을 수 있다. · 저장된 파일을 불러들여 읽거나 들을 수 있다.		
수업 설계의 주안점	이번 시간의 공부는 흉내내는 말을 찾아보고, 생활 언어로서의 제주어를 찾아보며, 흉내내는 말의 쓰임을 체득하게 하는 학습이 주된 활동이다. 아동이 노래를 부르고 노랫말 속에서 흉내내는 말을 찾아서 직접 움직임 활동으로 나타나게 하여 흉내내는 말의 쓰임을 알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수업에 임하였다.						

교수	<도입> · ‘국수와 젓가락’ 동시 외우며 학습 분위기 조성하기 · 여러 가지 소리나는 물건을 가지고 소리내어보기 <전개> · 교과서의 내용 파악하기(교과서 24 쪽) ·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정보 안내하기	동시집 ICT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	· 친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 파란 색으로 쓴 말의 의미 알기		날말카드
활동	-소리를 흉내낸 말과 모양을 흉내내는 말 찾기 <기본활동 1> 그림과 날말 카드 찾기 반딧불이 , 아기가, 아장아장, 반짝반짝 소리와 모양을 흉내내는 말 구분하기 <기본활동2> 산토끼, 곰 세 마리, <둥글게둥글게> 노래 부르기 ‘깡충깡충’이 주는 느낌 말하기 - 힘차다, 숫구친다. ‘으쓱으쓱, 빙글빙글, 랄랄랄랄, 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가링 <기본활동3> 흉내내는 말의 쓰임 알기 <보충활동> 흉내내는 말 분류하기 <심화활동> 흉내내는 말 사용하기	정보분석하기 협력연구하기	동요책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정리	<정리> 흉내내는 말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은가?		
평가	<평가> · 느낀 점을 말하여 봅시다.		PPT자료

ICT교수 · 학습 과정안

교과명	국어 (말하기듣기)		학년-학기	1-1	대단원	2. 느낌을 나누어요.		
소단원	1) 재미있는 말				학습주제	㉔ 흥내내는 말의 쓰임 알아보기		
차시	1/6	쪽수	pp. 24~27	적용모형	창의성계발 학습모형		교실환경	교단선진화 교실

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수업 형태	시간	수업 자료	ICT 활용 교수 · 학습 과정안		지도상의 유의점
					주요 화면	활용방법	
도입	‘국수와 젓가락’ 동시 외우며 학습분위기 조성하기. 공, 탬버린, 종, 장난감 총으로 소리내보기	전체 학습	5'	ICT 활용 교수 · 학습 과정안		대단원 및 본시 학습 내용 안내할 때 사용한다.	허용적인 분위기로 창의적인 말도 수용한다.
	대단원에서 공부할 내용 안내하기	전체 학습	5'	ICT 활용 교수 · 학습 과정안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학습주제가 나오면서 둘째 마당의 학습내용을 안내한다.	
전개	선택학습 (노래부르기)	모둠 학습	10'	소리 파일		‘둥글게 둥글게’ 울동하며 흥내내는 말 느껴보기	너무 소란하지 않게한다
	선택학습 (노래부르기)	모둠 학습	10'	소리 파일		‘둥글게 둥글게’ 울동하며 흥내내는 말 느껴보기	너무 소란하지 않게한다

단계	교수·학습 활동	수업 형태	시간	수업 자료	ICT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지도상의 유의점
					주요 화면	활용 방법	
정리	제주도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주어 찾아보기	전체 학습	10'	ICT 활용 교수 학습 과정안		제주도청 사이트를 링크 시켜 놓는다	미리 사이트와 연결한다
	홍내내는 말을 쓰면 좋은 점 정리하기	전체 학습	5'	ICT 활용 교수 학습 과정안		이번 시간의 학습목표 도달을 위하여 너무 제주어 공부 중심으로 치우치지 않게한다	

< 지도하고 난 후의 느낌 >

국어과에서 ICT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하고 수업하는 일은 동영상에 익숙한 아동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점에서는 매우 효과적이다. 거의 모든 아동들이 집중하고 스스로 학습활동에 참여하여 학습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또한 짧은 시간에 밀도 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따로 학습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교수·학습과정안 속에 멀티미디어 학습 자료를 연결시켜 놓으니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PPT를 이용하여 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적당한 학습자료를 찾아서 링크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였다. 에듀넷에서 다른 차시의 ICT교수·학습과정안을 탑재시키고 있는 데 제주어나 제주속담관련 학습에서도 관심 있는 교사들끼리 업무를 분담하여 탑재시켜 놓으면 보다 질 높은 학습이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6. 재량활동 시간의 제주속담 지도

1) 재량활동 시간 연간 계획표

매주 속담 한 수씩 선정하여 다양한 형태로 지도하였다. 가능하면 국어 교과 시간에 투입했던 제주속담들을 다시 한번 다지는 형태로 하고 학습 자료만 다양하게 써보았다. 재량활동 연간 계획표는 <표 V-3>과 같다.

<표 V-3> 재량활동 시간 연간 계획표

내용 월		지 도 내 용	내용 월		지 도 내 용
3월	1주	제주어에 대한 소개	9월	1주	나드는 개가 썩을 문다.
	2주	글 실픈 놈 허천글 읽나		2주	아니 짚은 굴묵에 네 나라.
	3주	기시린 도새기가 돌아맨 도새기 나무렌다.		3주	애기 업게 말도 귀 답아 들으라.
	4주	손이 놀민 입도 논다.		4주	우던은 못 속인다.
4월	1주	물 들어사 곱바리 잡나.	10월	1주	지 글른 건 몰르곶 놈 글른 건 안다.
	2주	간지난 물에 초난 질매 지운다 (신뢰,협동)		2주	재민 켜 갇 쫓나.
	3주	곤지 말렐 흥 말 더 잘 곤나.		3주	셔도 걱정, 엇어도 걱정.
	4주	곶은 일 흥민 곶은 밥먹나		4주	느는 놈 우티 타는 놈 쫓나.
5월	1주	물 죽은 밧되 들지 말라.	11월	1주	된 땅에 물 앓나.
	2주	아방 공은 천년인디 어멍 공은 만년인디.		2주	곶은 낭 귀 가운데 산다.
	3주	놈이 코 쓸쟁 말앙 이역 코나 쓸라.		3주	백 비름도 귀가 쫓겨.
	4주	벨 걸음 흥당 본 걸음 일른다		4주	허멍이 문세.
6월	1주	갠 지 발굽만이 먹어도 산다	12월	1주	나가 베고프민 놈도 베고픈다.
	2주	글 못 흥 놈 붓 골린다.		2주	흥 술 밥 열 놈이 먹나.
	3주	밥이 인습이여.		3주	연말 속담 경시 대회
	4주	기도 못 흥는 게 놀쟁 흥다 (정직, 순박)	2월	1주	흥당 말민 놈 웃나
7월	1주	강이 보말도 짚은 쫓나 (근실 겸 약)		2주	홉센 흥영 글른디 엇나.
	2주	1차 속담 경시 대회			

2) 재량활동 시간 교수·학습 과정안

교과	재량활동 시간	단원 명	우리 동네 자랑하기	
학습 목표	우리 이웃에 누가 사는지 알아보고 동네 자랑을 할 수 있다.			
교수·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시간	학습 자료 및 유의점
도입	학습 조직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끼리 모둠 구성 (삼양1동, 삼양2동, 삼양3동, 도련1동, 도련2동, 회천동)	5분	바둑판과 바둑알
	마음 열기	.동네 박수, 동네 노래 정하기 (박수는 월드컵 박수 변형 , 노래는 숨사탕 개사)	10분	
전개	우리 동네 표현하기	.모둠별로 박수와 노래 발표하기 .바둑판에 우리 동네 모습 그리기 (바둑알로 큰 길과 큰 건물 먼저 그리고 작은 집 그리기)	10분	
	마인드 맵 하기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 알아보기 .모둠별로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 마인드 맵하기	5분	
정리	속담 노래 부르기	.속담 노랫말 만들어 부르기 (이 거리 저 거리 각 거리 개사 하기) .속담 바꾸어 짓기	10분	학습지
		. 학습 정리 및 차시예고	5분	
			5분	

3) 지도 방법

소단원명: 우리 동네 자랑하기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끼리 모둠을 구성한다.

같은 모둠원 끼리 동네 박수와 동네 노래를 정한다.

(박수는 월드컵 박수 변형, 노래는 솜사탕 개사)
바둑판에 바둑알로 우리 동네 모습을 그린다.
우리 동네에 누가 사는 지 알아보고 표시한다.
모둠별로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을 마인드 맵 한다

제주속담공부	제1학년 1반 이름 (정은이)
제주속담: 동넛 사름이 먼 켜당보단 낫나. 표준어: 동네에 사는 사람이 먼 데 사는 친척보다 낫다.	
뜻: 이웃사촌이 소중한다는 말을 할 때 사용하는 속담입니다.	
‘동넛 사름이 먼 켜당보단 낫나.’라는 속담을 생각하며 우리 동네에 누가 사는지 생각해 보세요. ☘ 소중한 제주어, 알아두면 좋아요. 사름: 사람 켜당: 친척	

<그 림 V-8> 마인드 맵 그림

4) 지도한 후의 느낌

같은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끼리 모둠학습을 한 것이 처음이어서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게 공부하였다. 같은 동네끼리 노래와 박수를 치면서 유대감을 가지는 것이 좋았다. 특히 흰 바둑알과 검은 바둑알로 마을길과 건물을 표현하면서 마을의 전체 모습을 알아보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개별학습으로 이웃집에 사는 사람을 알아보고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게 하여 친척과 이웃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나중에 속담이 들어간 노랫말을 만들고 난 후 전래동요 음에다 가사를 붙여 부르는 활동은 토요일 과제로 제시하였더니 교사가 없어도 거의 모든 아동이 스스로 학습에 참여하였다. 모둠 활동으로 협동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니까 서로서로 도우면서 즐겁게 활동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되었다.

7. 평가

1) 속담 평가

제주속담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평가지를 작성하고 투입하였다. 어휘의 습득은 문맥을 통하여 이루어지며(이해면), 사용함으로써 습득되는 데(표현면), 어린이들의 어휘 증가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점은 획득한 어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이다.⁵³⁾ 일년동안 제주어와 제주속담에 관한 지도결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항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문제는 주로 속담의 뜻을 이해하는가? 하는 내용에 초점을 두었고, 삼양초등학교 33명의 아동들에게만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V-4>와 같다.

53) 박성배, 앞의 논문, p.60.

〈표 V-4〉 속담 평가 결과

(n=34)

속담	1.동뱃	2.먹들 도-	3.이녀 코	4.곤지	5.기시 린	6.빗치 락	7.공꺼 엔	8.범벅	9.멜도
정답자 전체	29 34	9 34	29 34	32 34	11 34	32 34	3 34	31 34	2 34
지도 방법	마인드 맵	예화 지도	역할 놀이	역할극	그리기	역할극	강의	조작 게임	강의

학업 성취도에 따르면 역할극> 마인드 맵> 게임이나 노래> 장면 그리기> 예화 지도> 강의 순으로 학습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방적인 강의나 개별학습보다는 모둠 학습이나 짝 활동 같은 협동학습의 결과가 훨씬 높고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는 아동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을 느꼈다.

따라서 아동들의 흥미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학습방법을 좀더 보완하고 정선헌서 새로운 학습 모형을 구안하여 적용하는 것이 속담지도에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소재별로 보면 자기 경험과 관계 있거나 생활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높고, 의외로 ‘공꺼엔 흐민 눈도 별경, 코도 별경’ 같은 속담은 어른의 입장이 아니어서 그런지 별로 흥미가 높지 않았다.

2) 설문 평가

속담 교육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표 V-5>와 같다.

< 표 V-5> 제주속담 설문 결과

(n=34)

난이도		흥미도		사용빈도		속담 이해도		호응도	
쉽다	24/32	재미있다	27/34	자주 사용한다	28/34	이해 안된다	15/34	또 배우고 싶다	14/34
어렵다	8/34	보통이다	5/34	가끔 사용한다	6/34	가끔 이해 안된다	13/34	나중에 배우고 싶다	18/34
잘 모르겠다	2/34	재미없다	2/34	사용하지 않는다	0/34	잘 이해된다	6/34	배우기 싫다	2/34

34명 중 24명의 어린이가 제주속담 공부는 쉽고 재미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8명의 어린이가 어렵다고 응답하고, 잘 모르겠다고 한 어린이가 2명인 것은 부모가 다른 고장에서 이주해와서 어릴 때부터 제주어를 접하지 못하여 생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가정에서 제주어나 제주속담을 사용하는 경우가 31명이고, 사용하지 않는다 3명으로 나타났다. 친구들끼리의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자주 사용한다 28명, 가끔 사용한다 6명, 사용하지 않는다 0명으로 나타나서 타지에서 이사온 가정에서는 제주어를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도 친구들과의 대화 등에서는 표준어와 다른 지방 방언, 제주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주어나 제주속담을 말할 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는 경우가 자주 있다 15명, 가끔 있다 13명 잘 모르겠다 6명, 28명의 어

린이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고, 6명의 어린이만 문제 없다.' 라고 응답한 것은 학교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제주어를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제주어나 제주속담을 활용하여 의사 소통할 때 좋은 점은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실감나게 나타낼 수 있다 9명, 가족들이나 친구들끼리 정답게 이야기할 수 있다 22명, 재미있다 3명으로 나타났다. 결국 제주어와 제주속담은 의사소통 능력도 길러주지만 부수적으로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어나 제주속담을 글로 쓸 때에 어려운 점은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에 딱 알맞은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9명, 말로는 알고 있지만 글로 쓰기가 어렵다 25명으로 나타났다. 아직 쓰기 능력이 미숙한데다 제주어가 생소한 표기여서 글로 표현하기에는 어색함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 제주어를 공부할 기회가 있다면 배우겠느냐는 설문에는 꼭 배우겠다 14명, 기회가 되면 배우겠다 18명으로 32명의 어린이가 배우고 싶다. 라는 반응을 보였고, 2명의 어린이는 싫다고 하였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사람들은 대부분 일상 생활에서 자기가 살고있는 고장의 방언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또한 대화 중에 효과적인 의사표현 수단으로서 귀중한 언어 자산인 속담을 사용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속담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의 국어사용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론 연구를 통해 제주속담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고 속담 교육과 국어교육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속담 교육에 관한 내용은 속담을 그 자체로 가르치는 방안이 있을 뿐 국어사용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한 예는 찾기 어려웠다. 특히 방언으로 된 속담 교육은 전무하여 국어 교육에서 아동들이 주로 사용하는 생활언어를 중심으로 한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덜 이루어지고 있다.

국어수업 현장에서 제주속담을 활용하기 위하여 속담 교육에 대한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인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분석하였다. 교육과정에는 저학년에는 쉽터에만 제시되어 있고, 4학년부터 속담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그나마도 영역별, 학년별 연계가 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제주속담 교육 자료를 선정 기준에 의하여 추출하고, 적용할 교수·학습 모형으로서 역할놀이 학습 모형과 문제해결 학습을 선정하였다.

제주속담을 교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휘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그림 카드와 파워포인트 자료 등을 활용하였고 역할놀이 활동을 속담 속의 말 바꾸어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영상매체에 익숙한 아동들에게 시각적인 자료가 좋았고, 움직임 활동에 많은 아동들이 관심을 보였

다. 이 때 총체적인 학습 자료인 ICT활용교수·학습 과정안을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제작하여본 결과 학습에 대한 흥미도가 매우 높았다. 재량활동 시간에는 이전에 투입했던 제주속담 자료를 다시 한번 다지는 형태로서 모둠학습을 시도했다.

제주속담을 활용한 학습이 국어사용능력을 신장시켰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가를 해본 결과 학습 지도 방법으로는 역할극이나 마인드 맵이 효과적이었고, 개별학습보다는 모둠 학습이나 짝 활동이 학습효과가 높았다.

속담 활용 학습에 대한 흥미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조사 결과로는 34명 중 24명의 어린이가 쉽고 재미있다고 응답했는데 말하기·듣기 활동에서 쓰기 활동보다 속담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이 제주속담을 저학년에게 적용하여본 결과 아동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알맞은 자료를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중심으로 적용하면 저학년 아동들의 국어사용 능력이 신장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동이 제주속담에 흥미가 대단히 높고 학습 참여도가 높은 반면, 적용한 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이어서 전부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러므로 교사가 적절히 속담 교육내용을 재구성하여 흥미 있는 활동을 통해 지도할 필요성이 높다 하겠다. 아동 수준에 알맞은 속담을 추출한 후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통해 적절히 적용하면 아동의 국어사용능력이 신장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는 위에서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속담을 활용한 국어사용능력 신장에 대한 후속 연구를 위하여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속담 교육은 고학년에만 가능하다는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 저

학년 아동들도 의사소통 과정에서 속담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충실하
되 얽매이지는 말고,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을 적용하면 보다 다양한 언어학
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 다른 지방에서도 방언이나 속담을 국어학습에 활용하여 아동들의 의
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어휘력을 늘리려는 효과적인 국어교육이 이루어지기 위
한 실제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표준어를 중심으로 가르쳐야 하지만 학습
목표에 따라서 속담을 활용하는 방안이 여러 지방에서 이루어지면 살아있는
언어 학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셋째, 보다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저학년
들의 흥미와 학습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학습 자료 개발과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에 대한 연구는 보다 수준 높은 국어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제주속담 제재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속담이
말하기·듣기교육과 쓰기교육의 제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데
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속담을 국어교육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그 작업이 결국 아동들의 국어사용 능력을 신
장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만 열어놓고, 더 나아가서 21세기 아동들에게 필요한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길러준다는 데에 대한 연구나 교수·학습 전략에 대
한 검증은 다음 기회에 연구할 과제로 미룬다.

참고문헌

저서

- 고재환, 《제주속담총론》, 민속원, 2001.
- 고재환, 《제주속담사전》, 민속원, 2002.
- 김기창, 《한국구비문학교육사》, 집문당, 1990.
- 김재봉 외, 《수준별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국어과 학습방법》, 교육과학사, 2001.
- 김재봉, 《초등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교육과학사, 2001.
- 류성기, 《초등국어지식교육》, 박이정, 1999.
- 신현재 외, 《국어과 협동학습 방안》, 박이정, 2003.
- 유재복, 《속담 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한국언어문학회, 1999.
- 윤석중, 《윤석중 할아버지와 함께 하는 속담 여행》, 아이북, 2001.
- 이기문, 《속담사전》, 일조각, 2001.
- 이재승, 《국어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1997.
- 이종철, 《속담의 형태적 양상과 지도 방법》, 이회출판사, 1998.
- 최창열, 《우리 속담 연구》, 일지사, 2001.

논문

- 고경희, “속담의 국어교육적 활용방안,” 서울대 국어교육과, 2002.
- 김기창, “속담교육 소고”, 《한국교원대한국어문교육》, 1990.
- 김봉순, “속담의 설득성과 교육적 함의”, 《논문》 제56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5.

- 김종택, “속담의 기능과 의미구조”, 《새국어생활》 제4권 제2호, 국립국어연구원 1994.
- 김하수, “속담에 대한 국어학적 재인식 시도”, 《새국어생활》 제4권 제2호, 국립국어연구원, 1994.
- 문금현, “관용표현에 대한 국어교육학적 고찰”, 《선청어문》 제27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1999.
- 민병곤, “토론 담화에서 속담의 진행(move)기능에 관한 고찰”, 《선청어문》 제30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2002.
- 박인기, “구비문학 자료의 국어교재 변용 연구”, 《청주교대 초등교육연구》 제2집, 청주교대 초등교육연구소, 1991.
- 박인기, “구비문학자료의 국어과 교재 변용”, 《초등국어교육》 2, 청주교대, 1991.
- 방운규, “사투리의 활용 방안”, 《한말연구》 제6호, 한말연구학회, 2000.
- 박성배, “초등학교의 어휘 지도 요소 선정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0.
- 박수미, “국어교육에서 속담의 지도 방안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 박정안, “속담의 국어 교육적 의의와 지도방법”, 경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 송명수, “언어에 관한 속담의 의미 기능 연구”, 전북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9.
- 서 혁, “언어사용으로서의 속담 표현의 특성”, 《선청어문》 제21호, 1993.
- 서 혁, “속담에 나타난 언어에 대한 태도와 속담어법 교육”, 《국어학 연구》, 남천 박갑수선생 화갑기념 논문집, 1994.
- 서현석, “다공간 모형을 활용한 속담 지도 방안”, 《한국어문교육》 제12집, 한국교원대 한국어문연구소, 2003.
- 양재아, “제주인의 심성에 관한 연구”, 호남 신학대 신학대학원 석사논문,

2001.

오소정, “속담 이해 능력의 발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1.

이기문, “제주 방언과 국어사 연구”, 《탐라문화》 제13호, 제주대학교 탐라
문화연구소, 1993.

이성영, “속담 어법의 국어교육적 의미”, 《국어교육》 73, 한국 국어교육 연
구회, 1991.

이재신, “언어사용능력 향상을 위한 연극의 교육적 활용방안 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02.

이종철, “교육용 속담의 선정 연구”, 《호서대 어문연구》 5, 1997.

이종철, “속담의 국어 교육적 의의와 지도 방법”, 《국어 표현 · 이해교육》,
집문당,

임유정, “속담의 지도 방안 고찰”,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장석규, “구비문학 교육 현실의 진단과 처방”, 《문학과 언어》 21, 문학과
언어학회, 1999.

장석규, “구비 문학 교육의 효용성”, 《구비문학연구》 8, 한국 구비 문학회,
1999.

주경희, “속담의 기능-유사성 표현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제100호, 한국국
어교육연구회,

주경희, “속담의 교훈성에 대하여”, 《국어교육》 제108호, 한국 국어교육 연
구학회, 2002.

최재학, “속담과 국어교과와의 연계학습을 통한 어휘력 신장 방안 연구”, 단
국대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1998.

하동준, “속담 패러디를 활용한 국어 표현 능력 신장 방안 연구”, 인천교대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002.

현평효, “제주방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주도》 통권 79호, 제주도, 1986.

ABSTRACT

A program of utilizing Jeju proverb to improve Children's Korean Language Abilities

Ko Jin-sook

Major of Elementary Korea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upervised by Professor Ko Jae-wh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how to improve lower grade students' Korean language ability by utilizing Jeju language and Jeju proverb, which they are using in real life in Jeju island. Everybody knows that proverb is a method of effective communication but any proverbs are not taught to lower grade students in current educational program. If a speaker or a listener doesn't understand what a proverb means, it will be useless for the proverb to exist as a language resource. Thus, it might be meaningful to introduce Jeju proverbs into Korean Language program, which can improve students' communication ability, and to make them create new proverbs in terms of creative Korean language life.

In Chapter 2, we studied the concept and background of Jeju proverb, study cases of Jeju proverb and contents of proverb education. Besides, we studied whether proverb had ever been used for Korean language program.

In Chapter 3, we scrutinized a change of education in proverb from the period of syllabus (the first educational course) to the period of the 7th educational course. After the current textbook and teacher's guide book

were analyzed, and an alternative plan to supplement the existing proverb teaching was suggested.

In Chapter 4, a necessity of selection of Jeju proverb materials was suggested, and Jeju languages and Jeju proverbs for teaching, which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field for Korean Language program, were sampled after the standard of selecting Korean educational materials was provided. And next we considered a relationship between a class model of Korean languages and proverb teaching, and we examined the contents of proverb teaching.

In Chapter 5, we examined whether lower grade students understood Jeju proverbs and we selected Jeju language and proverbs which could be applied to textbook of speaking and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by unit. Besides, methods of teaching Jeju language, and strategies of teaching and learning were suggested in detail. Teaching cases and teaching experience were described. A model of exploratory learning, a model of role-play learning, a design of teaching and leaning program using ICT and its schedules were proposed and real class cases were represented.

Yearly optional activity program, which could use an optional activity class, was made as a method of teaching proverb and its schedule was made.

As approaches to evaluation of proverb teaching, we analyzed evaluation sheets to measure comprehensibility of proverb and result of questionnaire survey was analyzed to evaluate the method of proverb teaching.

As a result, we reach that we need to include dialect or proverb, which children are using in real life, among Korean language teaching programs to increase their vocabularies and communication ability.

Major Language: Jeju language, Jeju proverb, Korean language ability.

<부록 I>

교육용 제주 속담

1. 가마귀 까옥 허민 줍새도 조조조 한다.
[용처] 분수에 어긋난 참견과 경쟁의식을 꼬집어서 빗댈 때
2. 가냐귀도 석돌 열름이 지나민 부모 공을 가꾼다.
[용처] 효친의 도리를 깨우칠 때
3. 가마귀 솟 타령한다.
[용처] 주제 파악을 못한 처신을 비꼰 때
4. 갠 첼 나무레곡, 첸 겔 나무레곡.
[용처] 분수를 망각한 처신을 빈정될 때
5. 것 먹을 땐 개도 안 다들린다.
[용처] 먹는 권익만은 보장되어야 함을 환기시킬 때
6. 개염지 좁쌀 물어 드리듯 한다.
[용처] 부의 축적을 위한 근면성을 부각시킬 때
7. 게우리 사는 땅 건다.
[용처] 토질과 지렁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지적할 때
8. 고랑창 물도 내창물 넘듯 넘어서 한다.
[용처] 안전의식을 되새길 때
9. 고망을 파도 흔 고망을 파라.
[용처] 성취를 위한 외곶의 집념과 노력을 강조할 때
10. 골은 낱은 가운데 산다.
[용처] 강직한 사람의 위상을 빗댈 때
11. 공꺼엔 허민 코도 벌경, 눈도 벌경.
[용처] 공짜를 탐내는 모습을 우롱해서 꼬집을 때
12. 공은 공으로 가프곡, 원순 원수로 가꾼다.
[용처] 인과응보의 필연성을 일깨울 때
13. 구실이 닳 말이라도 고망이 엇으민 못 췌다.
[용처] 무엇이건 활용 요건이 갖춰줘야 함을 일깨울 때
14. 굼벵이도 뉘갈라정 길 제간 싣나.
[용처] 누구나 그 나름의 특기와 수완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빗댈 때

15. 귀소문 말앙 눈소문ㅎ라.
[용처] 신빙성 있는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16. 그 아방에 그 아들, 그 어멍에 그 딸.
[용처] 혈통과 성품의 유전성을 부각시킬 때
17. 글 깨우친 놈 대왓드레 몬저 절한다.
[용처] 교육을 위한 체벌의 유용성을 부각시킬 때
18. 글 실폰 놈 허천글 읽나.
[용처] 게으름뱅이의 처신을 비꼰 때
19. 기시린 도새기가 돌아멘 도새기 타령한다.
[용처]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남 나무라는 것을 비꼰 때
20. 그늘이 먹곡, 그늘이 쓰라.
[용처] 과욕을 삼가고 절약 생활을 권할 때
21. 그뭇엔 물 오줌싼 물도 먹나.
[용처] 물의 귀중성을 부각시킬 때
22. 그슬 것 못 견어들인 놈 저슬 냉길 생각 말라.
[용처] 추수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23. 그슬 헤 작데기로 못 바툰다.
[용처] 추수철 아쉬운 시간을 부각시킬 때
24. 곧지 말렐 혼 말 더 잘 곧나.
[용처] 팔조심이나 비밀 보장의 어려움을 일컬을 때
25. 굴체 부지런.
[용처] 성과가 미미한 헛 부지런을 비꼰 때
26. 굵수기 들러퀴민 놀 분다.
[용처] 돌고래의 생태를 통해 기상 관계를 예측할 때
27. 나가 베고프민 놈도 베고폰다.
[용처] 역지사지의 이치를 일깨울 때
28. 나무렌 낭에 눈 걸린다.
[용처]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 것을 빗댈 때
29. 나 발등에 불을 꺼놔사 놈이 발등에 불을 끈다.
[용처] 자기 우선의 생태를 되새길 때
30. 나울 때도 멘손이곡, 죽을 때도 멘손이다.
[용처] 인생무상을 되새길 때
31. 나 입이서 궂인 말ㅎ민 놈이 입이서 궂인 말한다.
[용처] 언행의 신중성을 타이릴 때

32. 난 미영 키운 애기 놈은 켜다.
[용처] 자녀를 위한 가정 교육의 엄중성을 되새길 때
33. 남은 돌 의지, 돌은 남 의지.
[용처] 상호 의존 현상을 빚낼 때
34. 냇물에 가지말랭 허난 바당에 간다.
[용처] 지시 사항에 역행하는 반항적인 행위를 빚대어 꼬집을 때
35. 놈광 심백은 허국 게심이랑 말라.
[용처] 선의의 경쟁을 부추기고 시기를 경계할 때
36. 놈 논건 쉼도 못 쫓나.
[용처] 남이 보관한 것은 찾아내기 어려움을 빚낼 때
37. 놈이 가슴에 못 박으민 든쫘 못 잔다.
[용처] 선량한 처신을 권장할 때
38. 놈이 코 쓸쟁 말앙 이녁 코나 쏠라.
[용처] 남 걱정 말고 자기 일 잘하기 바랄 때
39. 눈썹에 불부터도 끌 저를 었나.
[용처] 몹시 바쁜 상황을 부각시킬 때
40. 눈썹에 불부터도 끌 저를 었나.
[용처] 몹시 바쁜 생활상을 부각시킬 때
41. 늑은 때 꺾장 베와도 다 못베왕 죽나.
[용처] 무궁무진한 학문의 세계를 되새길 때
42. 누는 꿩 심젠 허당 심은 꿩 놓친다.
[용처] 과욕의 부작용을 일깨울 때
43. 누 씻을 때 물 하영 쓰민 저승 강 그 물 다 먹어사 한다.
[용처] 물 낭비의 죄책을 내세로 연계시킬 때
44. 더운 죽에 푸리 놀아들 듯 한다.
[용처] 무모한 행위와 처신을 나무라서 빚낼 때
45. 데한질 놉똥 소롯질 겹질 말라.
[용처] 보행 시 대로를 선호하기 바랄 때
46. 도둑 맞아사 켜문 증근다.
[용처] 화를 입고 나서야 대비책을 강구하는 현상을 꼬집을 때
47. 도둑은 들민 집은 놉똥 가곡, 불은 나민 다 설렁 간다.
[용처] 도난의 피해보다 화재의 피해를 더 경계할 때
48. 도둑은 들민 혼 짐인다.
[용처] 도둑은 들면 어쨌든 피해가 있기 마련 일 때

49. 돈 나무레당 돈에 울곡, 사름 나무레당 사름에 운다.
[용처] 돈과 사람을 천시하지 팔기 바랄 때
50. 동넛 사름이 먼 뒷 켜당보단 낫나.
[용처] 이웃 사람의 소중함을 되새길 때
51. 동넛 새각씨 곱게 안보인다.
[용처] 자기 비하의 사대적 심리를 꼬집을 때
52. 동넛집 식께 넘어 나민 사을 불 아니 습나.
[용처] 검약의 생활상을 부각시킬 때
53. 동산도 굴렁 뒷곡, 굴렁도 동산뒸나.
[용처] 상황이 뒤바뀔 수 있음을 일깨울 때
54. 두 불 주손 더 아깝나.
[용처] 손자에 대한 조부모의 애정을 되새길 때
55. 둥그린 독새긴 빙애기 뒷곡, 둥그린 사름은 쓸 메 난다.
[용처] 다양한 고초를 겪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울 때
56. 뒷 골리곡 저울눈 속이민 후손에 즐봉수 난다.
[용처] 도량형을 속인 죄책을 부각 시킬 때
57. 뒷글로 베왕 말글로 쓴다.
[용처] 많이 안배웠지만 그 활용과 공헌도가 높을 때
58. 독도 지 앞썩 근어먹나.
[용처] 과욕을 경계할 때
59. 돌아멘 도새기가 기시린 도새기 타령 혼다.
[용처] 제 분수를 모른 처신을 비꼰 때
60. 떡은 돌릴수록 족아지곡, 말은 돌릴수록 커진다.
[용처] 전달과정에 나타나는 음식과 말의 상반된 형상을 지적할 때
61. 떡은 벨 떡 셔도, 사름은 벨 사름 엇나.
[용처] 사람마다 그 나름의 장단점이 있음을 지적할 때
62. 마 진 헤 검질 짓나.
[용처] 장마의 유해성을 지적할 때
63. 말랑 바로 곧곡 큰 켜기랑 지 앞더레 둥기라.
[용처} 사실에 따른 올바른 언행을 촉구할 때
64. 먹는 갠 슬치곡, 주끄는 갠 준다.
[용처] 실속이 있는 처신을 빗댈 때
65. 먹돌도 똥람시민 고망난다.
[용처] 강인하고 끈기있는 노력을 강조할 때

66. 멜도 베설 싣나.
[용처] 작다고 무시하지 말 것을 경고할 때
67. 몬저 난 터럭보다 나중 난 뿔이 무섭나.
[용처] 선배보다 후배가 우수함을 빗댈 때
68. 못흠 말후민 뱃난 날에 벼락 맞나.
[용처] 음해성 언행의 죄책을 부각시킬 때
69. 물 들어사 곰바리 잡나.
[용처] 회를 놓치고 다 닥쳐야 허둥대는 현상을 빗대어 꼬집을 때
70. 물항굽 물르민 살림 노고롯 안흔다.
[용처] 식수 비축의 중요성을 일깨울 때
71. 미운 이를 케운 이로 삼으라.
[용처] 아량과 포용력이 있는 인간관계를 부추길 때
72. 무음이 고와사 옷 앞섬이 아문다.
[용처] 나쁜 마음 가짐을 경계할 때
73. 무음이 뭍아사 보는 눈이 뭍나.
[용처] 정갈한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74. 무음이 펜헤사 먹은 것이 성드레 간다.
[용처] 마음의 안정과 편안이 보신의 요인임을 되새길 때
75. 무음이 풀어져사 후는 일이 게법나.
[용처] 안정된 마음가짐을 중시할 때
76. 물 죽은 밧뒤 들지 마라.
[용처] 헛길을 걸어 판전을 부리면 이득이 없음을 일깨울 때
77. 물 타민 구중 생각난다.
[용처] 여건이 좋아지면 욕심이 생기는 심리상태를 꼬집을 때
78. 물테우리보단 사름테우리가 더 어렵나.
[용처] 교육의 어려움을 되새길 때
79. 물 한되서 물 못 곱린다.
[용처] 물건이 많은 데서 선별의 어려움을 빗댈 때
80. 바당 속 지핀 알아도 훈 집안 식구 무음 속은 물론다.
[용처]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되새길 때
81. 바당 울곡 산 가참게 보이민 날 우친다.
[용처] 기상 관계를 예측할 때
82. 밥 동녕 말곡, 글 동녕후라.
[용처] 걸식을 경멸하고 향학열을 부추길 때

83. 밥이 인습이여.
[용처] 밥이 최상의 보약임을 강조할 때
84. 범벅에도 그릇 굿나.
[용처] 명확한 한계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85. 배우는 건 어른광 아이 따로 었나.
[용처] 공부는 노소의 차별이 없음을 주지시킬 때
86. 뱃 난 날 시민 비 오는 말 싣나.
[용처] 상황변화의 이치를 날씨에 빗대어 일깨울 때
87. 뱃 난 날에 비 오랴.
[용처] 사리에 어긋난 일이 있을 수 없음을 빗댈 때
88. 본디 휘와진 낭은 봄비와도 안 폐와진다.
[용처] 올곧은 바탕의 중요성을 깨우칠 때
89. 부몬 땅속에 묻곡, 주식은 가슴 속에 묻나.
[용처] 부모의 죽음보다 자식의 죽음이 더 비통한 것임을 부각시킬 때
90. 빗차락으론 개도 안뜨린다.
[용처] 빗차루로 때리는 것을 야만시해서 경계할 때
91. 뽕리 지저우민 뽕리 식나.
[용처] 속성의 결함을 빗댈 때
92. 사름광 족빡은 시민 신 대로 쓴다.
[용처] 인력과 용구는 다 용처가 있음을 되새길 때
93. 산에서 노는 가냐귀도 석돌 열름이 지나민 부모 공을 가꾼다.
[용처] 부모 봉양의 당위성을 일깨울 때
94. 삼년 그물당도 비 올 날 싣곡, 삼년 비 오당도 갠 날 싣나.
[용처] 인간의 영욕이 바뀌는 현상을 빗댈 때
95. 셔도 걱정, 엇어도 걱정.
[용처] 어떤 상황이든 걱정거리가 있기 마련임을 되새길 때
96. 소곰 먹은 징이가 물 좇나.
[용처] 결자해지의 이치를 되새길 때
97. 손에 쥔 독새긴 고리곡, 모시는 아인 어중기 뉘다.
[용처] 과잉보호의 부작용을 부각시킬 때
98. 손이 놀민 입도 논다.
[용처] 근로의 중요성을 일깨울 때
99. 숨이란 내쉬곡, 말이랑 내곤지마랴.
[용처] 말조심을 당부할 때

100. 송어 튀민 복쟁이도 튀쟁 한다.
[용처] 분수에 어긋난 처신을 빗대어 나무랄 때
101. 식께도 공들여사 먹나.
[용처] 정의와 공력의 중요성을 되새길 때
102. 식갯집 아이 몹쓴다.
[용처] 가진 자의 위세를 충자해서 꼬집을 때
103. 심은 꿩 놔뒀 누는 꿩 심젠 한다.
[용처] 지나친 욕심을 경계할 때
104. 아니 짙은 굴묵에 네 나라.
[용처]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음을 빗델 때
105. 아방 공은 천년이민 어멍 공은 만년인다.
[용처]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은공을 더 높이 칠 때
106. 안 무너난 하늘에 작데기 바투쟁 한다.
[용처] 우둔한 행위를 나무랄 때
107. 앞에 굴을 말 뒤에 곧곡, 뒤에 굴을 말 앞에 곧나.
[용처] 선후가 뒤틀린 잘못된 말하기를 꼬집을 때
108. 앞이선 좋은 말 후당 돌아사민 험담한다.
[용처] 표리부동한 언행을 꼬집을 때
109. 애기 업게 말도 귀담아 들으라.
[용처] 보잘 것 없는 사람의 말도 무시하지 말고 유념하기 바랄 때
110. 애기 짐광 메역짐은 베여도 안 내분다.
[용처] 귀중한 것은 버리지 못하는 생태를 되낼 때
111. 어둑은 날 시민 붉은 날 싯나.
[용처] 순환의 이치를 되새길 때
112. 어멍은 집쌀만씩 빌어오민, 아들은 물뚜 . 〇만씩 먹나.
[용처] 모정을 망각한 자식의 몰염치를 빗대어 꼬집을 때
113. 엄지 손가락 컷꼬망에 안든다.
[용처] 무리가 통하지 않음을 빗델 때
114. 업은 애기 밤새냥 좇나.
[용처] 심한 건망증을 해학적으로 꼬집을 때
115. 예산쟁이 망한다.
[용처] 선부른 예측의 위험성을 일깨울 때
116. 율곡 글른 건 양펜 말을 들어봐사 안다.
[용처] 불편부당한 사리판단을 바랄 때

117. 옷 땀 사름 금세^ㅎ지 말라.
[용처] 의복이 사람 평가의 기준일 수 없음을 되새길 때
118. 욕심이 썩민 도둑이 반 인다.
[용처] 과욕의 병폐를 풍자할 때
119. 우 골로로, 알 족족.
[용처] 분배의 합리설과 공정성을 되새길 때
120. 우던은 못 속인다.
[용처] 혈통의 유전성을 되뇌일 때
121. 원진 일 못 풀민 죽을 때 눈 못 곱나.
[용처] 생전의 품은 소원과 한은 풀어야함을 되뇌일 때
122. 웨손지 퀘느니 마개를 퀘라.
[용처] 외손자는 사랑한 만큼 이득이 없음을 되새길 때
123. 이녁 코도 못 쓸멍 놈이 코 쓸쟁 한다.
[용처] 자기 일은 못하면서 남의 일을 간섭하는 현상을 빗대어 풍자할 때
124. 이서도 걱정 엇어도 걱정.
[용처] 어떤 경우이든 문제점이 있기 마련일 때
125. 입으로만 꿩이여 매여.
[용처] 말만 앞서는 사람을 나무랄 때
126. 입으로 못^ㅎ 일 엇나.
[용처] 말만 앞세워 한몫 하는 것을 꼬집을 때
127. 입이 담뉼나.
[용처] 말의 신중성을 일깨울 때
128. 으스룩 혼디 꿩 득새기 난다.
[용처] 뜻하지 않은 곳에서 대견스러운 일이 생기는 현상을 빗낼 때
129. 잘해도 혼 구숭, 못해도 혼 구숭.
[용처] 흠잡히지 않는 일이 없음을 되새길 때
130. 장마 진 해 곡숙밭 검질 짓나.
[용처] 장마와 잡초의 상관성을 지적할 때
131. 장항광 어린아인 실려야 좋나.
[용처] 장독과 유아의 과잉 보호를 경계할 때
132. 재민 켜 깎 싣나.
[용처] 빠른 것이 능사가 아님을 일깨울 때
133. 켜 놔 식불 얻어먹나.
[용처] 빠른 운신의 이점을 되새길 때

134. 제비생이 노피 뜨민 날 종곡, 늦이 뜨민 날 우친다.
[용처] 제비의 생태를 통해 날씨[의] 징후를 예측할 때
135. 제산은 싯당도 엇곡, 엇당도 싯나.
[용처] 재산의 가변성을 환기시킬 때
136. 제산은 쓸수록 졸아들곡, 빚은 질수록 불어난다.
[용처] 낭비를 경계하고 옹골찬 삶을 일깨울 때
137. 조상 박접흠민 앞질이 어둡나.
[용처] 송조효친 의식을 고취시킬 때
138. 족은 놈 등찬다.
[용처] 키작은 사람의 됴됨이를 떠올릴 때
139. 좁쌀만이 간세헛당 담돌만이 움직인다.
[용처] 게을렀다가 당하는 피해를 부각시킬 때
140. 좁은 입으로 내친 말 넓은 치멧깍으로 못 막나.
[용처] 말조심을 타이를 때
141. 지가 낸 법에 지가 메맞나.
[용처] 자승자박의 현상을 지적할 때
142. 지 글른 건 몰르곡, 놈 글른 건 안다.
[용처] 자기 중심의 편견과 처신을 꼬집을 때
143. 지붕에도 무루 싯곡, 사는 되도 무루 싯나.
[용처] 험난한 삶의 고비가 상존하는 현상을 빗댈 때
144. 지싯물이 잇돌에 고망 딸른다.
[용처] 외곺수의 집념과 끈기의 위력을 빗댈 때
145. 지 일름제도 몰르멍 놈이 일름제 아는 체 한다.
[용처] 주제파악을 못하는 처신을 나무라서 꼬집을 때
146. 짐 진 놈이 광을 좇나.
[용처]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해야 함을 빗댈 때
147. 즘년 애기 낭 사을이민 물에 든다.
[용처] 억척스럽고 근면한 잠녀의 생활력을 부각시킬 때
148. 증근 문에 통췌.
[용처] 변통성 없는 구두쇠를 빗댈 때
149. 체 먹단 개가 쓸 먹쟁 한다.
[용처] 제 분수를 모른 처신을 비꼰 때
150. 체멘쟁이 굶영 죽곡, 호스쟁이 얼영 죽나.
[용처] 실속 없는 처신을 나무라서 경계할 때

151. 칼쟁이 칼 맞앙 죽곡, 활쟁이 활 맞앙 죽나.
[용처] 자업자득의 불가피성을 되새길 때
152. 코꼬망이 돌이메 숨을 쉬주.
[용처] 하도 기가 막혀 한심하기 짝이 없음을 개탄할 때
153. 큰 비 올 땐 내 안 넘나.
[용처] 폭우 시 냇물 건너는 위험성을 주지시킬 때
154. 탕건 올광 아이 행실은 그 자리에서 발리여사 한다.
[용처] 올곧은 바탕과 자세의 교정을 촉구할 때
155. 터진 그물로 멜 거리쟁 한다.
[용처] 우둔한 행위를 빗낼 때
156. 태풍은 농수엔 해롭곡, 바당엔 이롭나.
[용처] 태풍이 농작물과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상반된 모습을 지적할 때
157. 한락산에 번구름 내치민 마 걷나.
[용처] 한라산에 낀 구름의 형태를 보고 기상관계를 예측할 때
158. 허멍이 문세.
[용처] 실효성이 없는 문서를 빗낼 때
159. 허벅 진 이 호이 허난 펄진 이도 호이 한다.
[용처] 주제파악을 못하는 사람을 빗낼 때
160. 행실 늦인 거 모듬치기 당한다.
[용처] 잘못된 행동을 경계할 때
161. 후 볼 낭은 그늘을 노뜨게 둔다.
[용처] 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의 중요성을 빗낼 때
162. 힘 자랑 허당 힘에 눌령 죽나.
[용처] 과시나 자만에 의한 자업자득을 경계할 때
163. 허당 말민 놈 웃나.
[용처] 시중일관 끝맺음의 중요성을 되새길 때
164. 허렝 흘 땐 말앗당 말렝 허민 더 한다.
[용처] 반항적 기질이나 심리상태를 지적할 때
165. 혼돌에 개역 식번 주베기 식번 허여 먹으민 집안 망한다.
[용처] 식량절약을 위한 낭비를 경계할 때
166. 혼 술 밥 열 놈이 먹나.
[용처] 더불어 사는 나눔의 미덕을 되새길 때
167. 흡센 허영 글른디 엇나.
[용처] 존대어 사용의 중요성을 일깨울 때

<부록 Ⅱ>

속담 평가 학습지

재미있는 속담 나라

삼양초등학교 제1학년 장미반 이름 ()

♠ 제주속담은 우리 고장 사람들의 생각과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소중한 말입니다. 지난 1년간 배웠던 속담을 잘 생각하면서 알맞은 답을 적어보세요.

1. 민지와 수진이는 도련2동에 삽니다. 수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간 날 민지가 주간학습 안내를 가져다주었더니 수진이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중 가장 적당한 뜻을 가진 속담은 어느 것입니까?()

- ① 가마귀 솟 타령한다. ② 동넷 사름이 먼 켜당보다 낫
③ 도둑 맞아사 켜문 중근다. ④ 돌아멘 도새기가 기서린 도새기 나무랜다.

2. 재정이는 받아쓰기를 하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오늘도 20점을 받은 재정이는 속이 상해서 엉엉 울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 ① 막음이 웅아사 보는 눈이 뽀나. ② 범벅에도 그릇 곱나.
③ 손이 놀민 입도 논다. ④ 먹돌도 풀람시민 고망 난다.

3. ‘이녁 코도 못쓸멍 놈이 코 쓸쟁 한다.’는 어떤 뜻을 가진 속담인가요?
.....()

- ① 코를 깨끗이 닦아야 한다. ② 코가 나와야 건강하다.
③ 애기 코를 닦아주어야 한다. ④ 자기 일도 못하면서 남의 일에 간섭한다

4. 하정이는 동생하고 놀다가 그만 어머니의 화장품을 깨뜨렸습니다. 아무도 몰래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서 동생한테 비밀을 지키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오시자 마자 달려가면서 “엄마, 언니가 엄마 화장품 깬어요.”하고 고자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때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속담은 어느 것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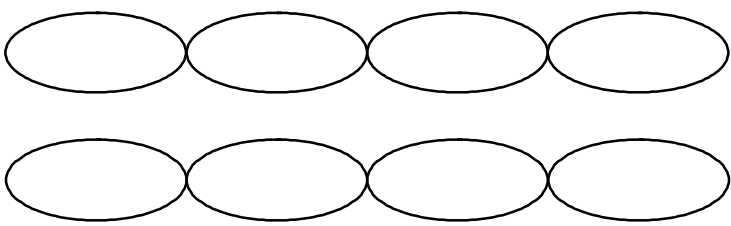
- ① 곧지 말렝 혼 말 더 잘 곧나. ② 동넷 사름이 먼 켜당보단 낫나.
③ 늑는 꿩 심젠 허당 심은 꿩 놓친다. ④ 냇은 냇 의지, 돌은 돌 의지.

9. ‘멜로 베설 싯나’를 다른 속담으로 바꾸어 만들어 보세요.

()

<부록Ⅲ>

속담 교육 학습지

제주속담공부 1	제1학년 1반 이름 ()
제주속담: 멜도 배설 싣나. 표준어: 멸치도 창자가 있다.	
뜻: 아직 작고 어리다고 나무랄 때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할 때 쓰는 속담입니다.	
‘멜도 배설 싣나.’를 넣어서 짧은 글을 지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중에서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생각해서 그림으로 그리거나 이름을 써보세요.	
짧은 글: 나는 작지만 하늘만큼 소중해요  ☞ 소중한 제주어, 알아두면 좋아요. 멜: 멸치 배설: 창자 싣나: 있나	

제주속담공부 2	제1학년 1반 이름 ()
제주속담: 나무렌 낭에 눈 걸린다. 표준어: 나무라던 나무에 눈 걸린다.	
뜻: 친구나 다른 사람이 업신여길 때 언젠가는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니까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할 때 쓰는 속담입니다.	
‘나무렌 낭에 눈 걸린다’라는 속담처럼 다른 사람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무시당했을 때의 속상한 내 얼굴을 그려보세요. ☞ 소중한 제주어, 알아두면 좋아요. 나무렌: 나무라는 낭에: 나무에	

제주속담공부 3	제1학년 1반 이름 ()
제주속담: 동넛 사름이 먼 쁘당보단 낫나. 표준어: 동네에 사는 사람이 먼 데 사는 친척보다 낫다.	
뜻: 이웃사촌이 소중하다는 말을 할 때 사용하는 속담입니다.	
‘동넛 사름이 먼 쁘당보단 낫나.’라는 속담을 생각하며 우리 동네에 누가 사는지 생각해 보세요. <pre> graph TD A((우리 집)) --- B((네 집)) A --- C((네 집)) A --- D((네 집)) A --- E((네 집)) </pre>	
☞ 소중한 제주어, 알아두면 좋아요. 사름: 사람 쁘당: 친척	

제주속담공부 4	제1학년 1반 이름 ()
제주속담: 곧지 말렐 혼 말 더 잘 곧나. 표준어: 말하지 말라고 부탁한 말 더 잘 말한다.	
뜻: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비밀을 지키기 어려울 때 쓰는 속담입니다.	
‘곧지 말렐 혼 말 더 잘 곧나.’를 넣어서 자기가 겪었던 일을 써보세요. 제 목:	
☞ 소중한 제주어, 알아두면 좋아요. 곧지: 말하지 말렐: 말라고 혼: 한 곧나:말한다	

제주속담공부 5	제1학년 1반 이름 ()
제주속담: 입으로만 평이여, 매여 표준어: 입으로만 평이다, 매다 한다.	
뜻: 자기가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이러쿵저러쿵 할 때 사용하는 속담입니다.	
★ 자기가 겪었던 일을 생각하며 간단히 적어보고, 그때 느낀 생각을 되살려 보세요.	
제목:	
나의 느낌:	

제주 속담 공부 6	제1학년 장미반 이름()
제주 속담: 니가 베고프민 놈도 베고폰다	
뜻: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속담입니다.	
‘니가 베고프민 놈도 베고폰다’를 넣어서 노랫말을 만들어보세요. (부를 노래) : 이거리 저거리 각거리 니가 베고프민 놈-도 베고폰다. 나 혼자만 욕심부려 심통부려 망신살. * 노래를 부르고 난 뒤 자기의 생각을 간단하게 써보세요.	

제주 속담 공부 7	제1학년 장미반 이름()		
제주 속담: 뎡이 코 쓸쟁 말앙 이녀 코나 쓸라.			
뜻: 쓸데없이 남 걱정이나 참견은 그만하고 자기 일이나 잘하라고 할 때 사용하는 속담입니다.			
‘뎡이 코 쓸쟁 말앙 이녀 코 나 쓸라.’를 넣 어서 재미있는 만화를 그려 보세요			

제주 속담 공부 8	제1학년 장미반 이름()
제주 속담: 물 들어사 곰바리 잡나	
뜻: 놀기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다 닥쳐야 허둥대는 모습을 빗댄 말입니다.	
‘물 들어사 곰바리 잡은 적’이 있나요? 그 때의 경험을 자세하게 써보세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제 목: 	

”설 문 지

1학년 장미반 친구들 안녕?

지난 1년 동안 우리 반 친구들은 제주어와 제주속담을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기회에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그 동안 공부하면서 느꼈던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대답한 내용은 학교성적과는 관계가 없고 오직 연구 자료로만 쓰이게 되므로, 다음 물음에 대하여 평소의 생각이나 사실을 솔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2월

삼양초등학교 1학년 장미반 담임

※ 다음 질문을 읽고 물음에 해당하는 답을 () 안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어나 제주속담 공부는 어떠하였습니까?.....()

① 쉽고 재미있다 ② 보통이다 ③ 어렵고 재미없다 ④ 잘 모르겠다

2. 가정에서 제주어나 제주속담으로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자주 있다 ② 가끔 있다 ③ 없다 ④ 잘 모르겠다

3.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 반 친구가 제주속담을 사용하여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자주 있다 ② 가끔 있다 ③ 없다 ④ 잘 모르겠다

4. 할머니나 부모님 등 어른들이 말할 때에 제주속담을 사용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자주 있다 ② 가끔 있다 ③ 없다 ④ 잘 모르겠다

5. 다른 사람들이 제주어나 제주속담을 사용하여 말할 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자주 있다 ② 가끔 있다 ③ 없다 ④ 잘 모르겠다

6. 일기 쓰거나 글짓기를 할 때에 제주어나 제주속담을 사용하여 글을 써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자주 있다 ② 가끔 있다 ③ 없다 ④ 잘 모르겠다

7. 다른 사람과 말하거나 글을 쓸 때에 제주어나 제주속담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까?.....()

- ① 아주 많다 ② 가끔 있다 ③ 없다 ④ 잘 모르겠다

8. 제주어를 사용하여 말을 할 때에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가장 좋았습니까?.....()

- ①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실감나게 나타낼 수 있다.
② 가족들이나 친구끼리 정답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③ 제주어 표현이 재미있게 느껴진다
④ 잘 모르겠다

9. 제주어나 제주속담을 활용하여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

- ①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에 딱 알맞은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② 말로는 알고 있지만 글로 쓰기가 어렵다.
③ 제주어나 제주속담이 너무 어렵다.
④ 잘 모르겠다

10. 제주속담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었습니까? 재미있었던 차례대로 번호를 써 주십시오.

- ① 노래 부르기 () ② 동화나 이야기 듣기 () ③ 만화 그리기 ()
④ 역할놀이 () ⑤ 경험한 일 쓰기 () ⑥ 마인드 맵 ()

11. 2학년이 되어서도 제주어나 제주속담을 배우고 싶은가요? ()

- ① 꼭 배우고 싶다 ② 기회가 되면 배우고 싶다. ③ 배우기 싫다
④ 잘 모르겠다.

<부록 V>

ICT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PPT 슬라이드 자료

- 국어(말하기·듣기)
- 제1학년 1학기
- 2. 느낌을 나누어요.>1. 재미있는 말(3/6)

흥내내는 말 알아보기

수업활동 안내
흥내내는 말 알아보기

1. 흥내내는 말의 쓰임 알기

5. 공부한 내용 정리하기

4. <ㅏ>와 <ㅑ> 발음하기

3. 흥내내는 말을 넣어 이야기 꾸미기

2. 시를 듣고 흥내내는 말이 주는 느낌 말하기

1. 시를 듣고, 흥내내는 말이 주는 느낌을 말할 수 있다.

그림에 알맞은 말을 찾아 말하여 봅시다.

아장아장, 반짝반짝, 성큼성큼

1. 제주어로 흥내내는 말을 알아보자

그림에 알맞은 말을 찾아 말하여 봅시다.

반짝반짝-빈찍빈찍

2. 노래를 부르고, 소리나 모양을 흥내내는 말을 찾아봅시다.

‘학교종이’, ‘사과 같은 내 얼굴’

유의할 사항

- 소리를 흥내내는 말
- 모양을 흥내내는 말

3. 산토끼를 읽어봅시다.

산토끼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강충강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4. 곰 세 마리를 노래 불러 봅시다.

곰 세 마리
곰 세 마리 한 집에 있어
아빠 곰은 동동동
엄마 곰은 동동동
아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으쓱 잘한다.



5. '동글게 동글게' 노래를 불러 봅시다.

동글게 동글게
동글게 동글게 동글게 동글게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며
랄랄랄라 즐겁게 춤추자.
링가링가 링가 링가링가링.
링가링가 링가 링가링가링.
손에 손을 잡고 모두 다 함께
즐거움게 춤을 춥시다.



6. 흥내내는 말을 사용하면 좋은 점

- ☐ 소리를 재미있게 나타낼 수 있다.
- ☐ 모양을 재미있게 나타낼 수 있다.



7. 제주어로 동물이름과 흥내내는 말 알아보기

- ☐ 관련 정보 탐색

• 제주도청
• 병아리-빙애기
• 빙애기는 어떤 소리를 낼까요?

제주도청 사이트를 검색하면서 제주어로 동물이름을 찾아 봅시다.



8.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여 봅시다.

▶ 흥내내는 말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 인물의 행동을 재미있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이야기의 장면을 실감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